

2023년 가을호 vol.172

이화 동창

2023 총동창회 대바자회, 황화방 재개업 감사예배
만나고 싶었습니다 / 1970년대 디바이자 서양화가 정미조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어야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5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⑤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5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6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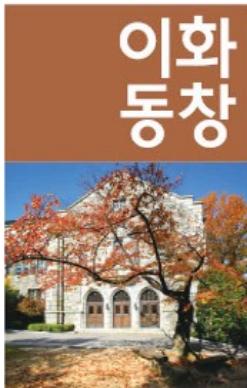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중강당 왕벚나무 단풍(2021)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외 89,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3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3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03 2023 총동창회 대바자회

동창과 재학생, 교직원들로 북적인 장터
만남을 반기고 먹거리를 즐기며 이화DNA를 나누다



03

11 황화방 재개업 감사예배

두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 마치고
교류와 쉼, 상생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11

14 '2023 동창의 날' 감사 모임

식탁의 교제를 즐기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 나눠



14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1970년대 최고의 디바이자 서양화가 정미조 동창



16

20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은정 동창



16

2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카니누와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20

26 우리는 이화 가족

박랑규 동창과 3명의 조카, 조카사위, 며느리로
이어지는 이화 가족 이야기



26

31 동창 기고

캐나다 노バス코사주 파인힐의
한국 파송 선교사 발자취를 찾아



38

34 총동창회 소식

11월 '이화인의 밤' 행사, 호텔 개최 결정 외



38

36 선교부 소식

너희는 기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38

38 모교 소식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 외



38

43 대학(원) 소식 인문과학대학 외

48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55 지회 소식 멜버른 지회 외

62 동창 근황 고최선화 동창 외

72 동창이 펴낸 새 책 『뿌리를 찾아서』 외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 9:17)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이화'를 '이화' 되도록 시간의 찰나마다 이끄시고
따뜻이 감싸 두르심으로 이제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화'로 하여금 잠잠히 당신의 눈으로 살피고 당신의 귀로 그 소리 듣게 하셔서
지체 없이 당신의 마음을 듬뿍 담아 그 뜻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연연하여 사망의 길로 달음질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직 '이화'의 발을 당신의 목전에 머물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송축하며
곤고한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게 하시고
강포를 품은 그릇된 이들의 협통함을 부려워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가 여름 가뭄처럼 메말라 쇠잔할 때 면면을 시원히 축이시고
한평생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후로도, '이화'로 하여금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당신의 인애로 숨 쉬게 하셔서
주저 없이 당신의 몸 엮어 씨줄과 날줄로 그 신비 엮어가게 하시옵소서…
행여라도 그 입술의 가증한 소리와 속임수로 말미암아 조롱당하지 않도록
오직 '이화'의 삶을 당신의 소유로 입 맞추어 시나브로 깨끗이 지어가게 하시며
환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루 행하여 애곡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부터 돌아선 이들의 윤택함에 단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를 성소 삼아 예비하신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화 공동체'가 하나 되어 당신의 영으로 스며들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이화'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걸음 옮길 때에 그 길 잊지 않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으로 당신의 얼굴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름지기 '이화' 안에 거니시는 당신의 비밀한 자취를 외면함으로 버려진 바 되지 않도록
오직 '이화'의 둉지를 곳곳에 앉혀 당신의 궁홀하심으로 그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손수 공궤해 주시는 동산 안의 참 풍요를 허기진 이들과 나누어 누리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헛되이 여기는 이들의 부요함에 밀려 요동치 않도록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화'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23 총동창회 대바자회

동창과 재학생, 교직원들로 북적인장터 만남을 반기고 먹거리를 즐기며 이화DNA를 나누다

총동창회는 9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동창회 기금 마련과 동창 간의 친목 도모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자회를 모교 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전날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막과 테이블, 의자, 부스별 현수막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바자회 당일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며 동창들과 재학생, 교직원들로 북적이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모교 생활환경관 주변에 펼쳐진 58개의 부스에는, 각 학과와 대학(원) 및 단체가 참여해 친환경 먹거리와 영양제 및 화장품, 의류와 액세서리, 수공예제품 등을 선보였다. 이날 바자회 장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김은미 모교 총장, 총동창회 이경숙·김영주·남상택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임원진, 임진 이올 연합회 회장 등 동창들이 찾아와 격려하였다.

인문대 통합부스, 이화 기업가 제품 소개로 큰 인기

오전 10시, 바자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와 함께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부스마다 풍성한 열매 거두시길 기원합니다”라며 낭랑한 목소리로 바자회의 시작을 알렸다.

바자회 출입구로 들어서자 인문대학 통합부스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문대학은 7개 학



개회사를 하는 이명경 총동창회장

과-기독교·불문·사학·영문·국문·독문·중문과-가 연합해 ‘이화 DNA’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화 출신 기업가의 물품을 발굴해서 알리고 판매하는 이색 전략을 펼쳤다. 바

자회를 통해 이화 동창들이 만든 제품을 널리 알리고, 행사장을 찾은 동창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인문대학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화 출신 기업가 동창과 접촉하여 판매 물품을 확정 짓고, 각 과 동창회에서는 오프라인 및 단톡방 미팅 등 여러 차례 기업들과 회의 끝에 할인된 가격으로 바자회에

물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인문대학 바자회에 참여한 동창 CEO는 ‘픽사트’ 가방의 우혜원(서양 00) 동창, 캐시미어 의류 ‘나인 마케팅’의 이순영(경영 85) 동창, ‘스텔라 플라워’의 임성은(생명 94) 동창, 일러스트레이터 송지혜(섬예 09) 동창, ‘크렘 드 르네 케이크’의 박현실(경영 09) 동창이다. 이외에도 MZ세대의 핫아이템 ‘노티드 도넛’, 커피계의 에르메스 ‘바샤커피’도 인문대 통합부스에서 판매했다. 새벽부터 각 업체에서 직접 나와 인문대 통합부스를 감각적인 디스플레이로 꾸며,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일러스트레이터 송지혜 동창은 전 세계 100만 부 판매 기념 증보판『시간의 정원』책 사인회를 12시부터 30분간 열어 재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사인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문대학 동창회는 원활한 판매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쇼핑몰 ‘엘라 프렌즈(ELA



오랜만에 선후배 간 친교를 나누고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김은미 총장 등 모교 직원들과 재학생들도 바자회를 즐겼다



먹거리들은 12시 이전에 대부분 매진되었다. 먹거리존의 동창들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어 불판과 함께 얼굴이 벌겋게 익어 갔지만, 손 크게 펴주고 담아주길 그치지 않았다. 특히 도넛, 핫도그, 구슬 아이스크림 판매대에 재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Ewha Liberal Arts × Friends'를 열고, 이화DNA × 바자회 특선 할인 10% 행사도 하며 온라인 홍보와 판매에도 열성적이었다. 인문대 통합부스 '이화 DNA'를 기획한 안영호(중문 85) 인문대 동창회장은 "인문대학 7개 과가 대동단결해 아이템별로 연관 있는 위치로 부스를 연결하고, 자리가 좁아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등 인문대학 통합 존을 만들어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다"고 말했다. 캐시미어 제품을 막아 판매 성과를 거둔 최유리(사학 84) 사학과 동창회장은 "동창 기업가의 제품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전했다. 사학과는 모교 교수로 있는 동창들도 파란색 인문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판매 일선에 동참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손큰 인심과 손맛 자랑에 먹거리 매진 이어져

먹거리 마당은 생활환경관 입구 주변으로 이올연합회, 통계학과, 물리학과, 조형예대, 장식미술과, 문헌정보학과, 국제사무학과가 참여해 자리를 잡았다. 먹거리존은 몰려드는 학생들과 동창들로 정오 무렵이 되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리본 머리띠와 녹색 앞치마를 두르고 판매한 조형예대는 10여 명의 녹미회 임원들이 오뎅팀, 떡볶이팀, 핫도그팀, 김밥팀으로 분담해 준비했다고 한다. 핫도그 60여 개는 12시에 이미 완판, 접시 들고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떡볶이를 연신 뒤적이며 분주했다. 바로 옆은 5명의 동창이 옹기종기 모여 프라이팬에 빈대떡을 지지고 있는 장미과 공간디자인전공 부스. "맛집으로 소문난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반죽에 돼지고기와 김치를 추가로 듬뿍 넣었다"며 양파 양념장까지 곁들여 주었다. 건너

편 이올 연합회 부스에는 최혜정(한음 90) 동창이 준비한 이른바 ‘최장금 해물부추전’이 인기. “일찍 왔어야지”라는 통 큰 멘트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올 연합회는 해물부추전을 큰 양푼으로 3개나 이미 완판시켰다고 한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어 불판 위의 김치전과 함께 얼굴이 벌겋게 익어갔지만 손 크게 퍼주고 담아주는 온정에 사는 사람도 덩달아 신이 났다.

통계학과의 차돌묵은지 볶음밥은 학생 SNS에 <4,500원에 국이랑 파클도 주고 맛있어>라는 소문이 나며 160인분이 완판되었다. ‘감자곤 드레솔밥’만 소량 남아 한입 시식으로 맛보았는데 무척 맛있었다. “많이 파셨어요?” 물어보니 빈 접시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당당하게 가리킨다. 곁들여 판매한 감귤주스도 진한 착즙으로 인기가 좋았다며 뿌듯해했다.

물리학과는 매년 떡볶이, 오뎅, 김치전, 청귤청으로 바자회 먹거리를 담당하는 주축이다. 동창의 부모님이 직접 제주도에서 한약재 비료로 농사지은 유기농 청귤로 물리학과 회계가 보름 전에 청을 담갔다고 한다. 더운 날씨에 행여 재료가 상할까 전날 밤늦게까지 다듬고 준비하고 간도 맞춰놓

았다고. 김치전은 이숙희(물리 87) 동창이 직접 묵은지를 가져와 쫑쫑 썰어 넣어 맛을 살리는 등 각 분야의 고수들이 솜씨를 발휘했다. 김현애(물리 91) 동창은 “물리학과 후배 재학생들에게는 공짜로 주겠다고 연락을 돌렸더니 23학번 신입생부터 교수님까지 20~30명이 찾아 주셨어요”라고 자랑했다. 이윤을 남기기보다 동창회의 연대를 목적으로 둔 물리학과의 넉넉한 씀씀이가 돋보였다.

국제사무학과와 융합보건학과의 (영천시장)달인꽈배기도 작년에 이어 인기 아이템이었다. <국제사무학과 꽈배기 1,000원. 달고 따끈해. 앞에서 시식용도 나눠 주신다!>는 학생들의 입소문 SNS 탓인지 작년보다 2배 더 가져왔는데, 국제사무학과 300개, 융합보건학과 400개가 모두 빠르게 품절되었다. 이계온(융합보건 87) 융합보건과 동창회장은 “학생과 동창이 반반. 두 학과에서 별도로 주문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이었다”고 맛집 정보를 전했다. 고현주(국제사무 90) 국제사무학과 동창회장은 “완판된 음료와 함께 마진은 크지 않았지만 바자회 서비스 차원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생활미술과는 마시는 한끼 후레이크 ‘세이크런치’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동창들이 솜씨를 뽐내며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은 총동창회 바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품들이다. 동창들이 분양받아 키운 반려식물을 내놓거나(생명과학과) 조형예대 동창들의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 자폐인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만든 오타스타의 굿즈(특수교육과)와 함께 작가 사인회(인문대)를 여는 등 참신한 기획 상품이 돋보였다

바자회 마칠 때까지 대기 줄이 끊이지 않았던 또 다른 곳이 바로 문헌정보과 계난경(문정 88) 동창이 대표로 있는 ‘미니멜츠 구슬 아이스크림’부스이다. 시중보다 30~40% 할인된 가격이 입소문을 타, 아이스 냉장고 2개에 담긴 6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바자회의 스테디셀러, 올해도 여전한 인기

총동창회는 매년 인기 상품이었던 백명란을 비롯해 핑크색 32G USB, 최고급 대형 타올, 지구사랑 텁블러, 양면 파우치를 준비했으며, 사회적 기업 오타스타의 한정판 가방을 선보였다. 총동창회 산하 이올 연합회에서는 2017년 ‘올해의 이화인’인 이소연(성악 87) 동창이 기부한 ‘오브엠’ 구두를 판매했다. 백화점 구두를 총동창회 바자회에

서 90%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데다,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기본 정장 구두에서부터 발이 편한 기능성 컴포트화까지 모든 연령대가 믿고 찾는 신발이다. 또한 신난식(성악 73) 이올 연합회 부회장이 디자인한 배꽃 무늬가 그려진 에코백 두 종류를 선보였다. 2023 ‘올해의 이화인’은 와인 포장 용 보자기와 강아지 한복 설빔으로 눈길을 끌었다.

‘자폐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문구 아래, 특수교육과는 모교 이소현(특교 83) 교수 가 대표로 있는 ‘오타스타’에서 자폐인의 특별한 재능을 활용한 화려한 색채의 문구류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자폐인 디자이너가 현장에 나와 직접 본인이 디자인한 노트 제품을 설명하며 판매를 도왔다. 킬리만자로에 있는 얼룩말을 그렸다고 설명하는 디자이너 유나모 씨는 “동물을 좋아하느

냐?”는 질문에 “동물복지 를 좋아한다. 길들이지 않은 얼룩말의 모습이 좋다”고 재치있게 답했다.

대면 바자회의 꽃은 아나바다. 온라인으로는 전 가를 전달할 수 없기에 현장에서 그 빛을 발한다. 명품 아나바다로 유명한 조형예대는 생활환경관 앞에 꾸려진 별도의 부스에서 구입 5년 이내의 패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했고, 이올 연합회도 회원들에게 기증받은 모자 등을, 심리학과와 종교음악과 등 다수의 학과에서 상자째 묵혀둔 새 것과 다름없는 다채로운 기증품들로 아나바다의 재미를 더했다. 특히 정외과 부스의 장난감은 일찍 완판, “뽀로로 시리즈를 누가 사갈까 싶었는데 손자 준다고 제일 먼저 사갔다”며 웃음 지었다.

추석을 앞두고 동창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빠질 수 없다. 사회학과는 바자회의 스테디셀러인, 박춘호(사회 70) 동창이 강진으로 귀농

해 직접 농사지은 여주와 말린 고사리 등을 비롯해 귀리 김부각, 잡곡 세트, 참기름, 들기름을 선보였다. 경제학과 윤혜령(경제 91) 동창은 “동창들이 오미자를 직접 담가 1년간 발효시켜 수제 오미자식초를 만들었다”고 홍보하였고, 엘텍공과대학에서는 이주연(컴공 88) 동창이 창업한 회사 ‘아이두비’의 무농약 국산 현미 누룽지로 만든 현미칩과 크릉지를 선보였다. 종교음악과에서는 친척의 제주도 꿀꽃 꿀을 산지 직송으로 판매했고, 가정 관리학과에서는 강원도 원주에 귀농한 이정수(가관 73) 동창이 만든 된장, 고추장, 들기름 등을 판매했다. 국문과는 수제 명품 강정 3종을 준비해 완판시켰고, 영어교육과에서는 사과 세트를 현지 직송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체육학과에서는 제주 명품돼지 선물 세트와 제주 흑돼지 육포 선물 세트를 할인 링크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약학대학



에서도 낱개 사과를 포함 홍로사과 선물 세트와 모시송편을 완판시켰다.

명절 필수기구인 프라이팬을 준비한 한국음악과와 무용과의 제품은 단골 품목으로 꾸준히 인기를 끄는 제품이다. 또한 명절과 환절기를 대비해 약학대학(리쥬란 크림)과 물리학과(코스미퓨어 화장품세트), 섬유예술과(씨큐몽)에서 동창들의 피부 관리를 책임질 화장품을 선보였다. 환절기 건강을 챙길 영양제는 체육학과의 유산균, 오메가3 등 영양제와 식품영양학과의 비타믹스 제품이 눈에 띄었다.

전공 살린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제품도 선보여

동창들이 특기를 살려 직접 만든 디자인한 상품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바자회에 오래 머물게 하는 효자 상품이다. 동양화과는 동창들에게 기부 받은 색색의 굵은 구슬을 뛰어 곰돌이 인형이 달린 가방 키링을 제작했다. 5명의 동양화과 임원들이 미술 전공자의 안목을 살려 만든 색 조합이 예뻐서 결정 장애를 유발하며 발걸음을 뗄 수 없게 했다. 서양화과에서는 동창의 작품이 프린트된 대형 에코백과 액세서리를, 조소과에서는 오주연(조소 90) 동창의 가죽 팔찌 등 액세서리와 안경케이스, 차경화(조소 00) 동창의 나무 재료로 만든 브로치와 팔찌, 이주연(조소 00) 동창의 금속공예 제품이 “전문가의 터치가 역시 다르다”는 감탄을 자아내며 인기를 끌었다. 옆 도예과 부스에서는 ‘가지각색 세라믹 마켓’이라는 간판 아래 박수정(대학원 21년 입학) 학생을 비롯해 대학원 재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직접 만들어 구운 꽃병과 갖가지 찻잔들이 화사한 자태를 뽐냈다. 장식미술과 패션디자인전공에서는 이화여대 패션디자인 연구소 E:FEEL의 계절을 앞서가는 니트 의류와



총동창회 부스를 찾은 김은미 총장과 이명경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진들

스카프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퇴임한 교수가 작업한 아트 쿠션과 동창 브랜드의 가방 제품을 선보였다. 디자인대학원에서는 이화의 상징-교표와 교정의 풍경 등을 모양낸 디자인 쿠키 세트 외에 거울, 유리화 기법의 인센스 홀더, 노트 등 독특한 제품들을 내놓았다. 생명과학과에서는 박미향(생명 89) 동창이 직접 그린 먹그림과 옥, 묘안석 등 귀한 재료에 새기는 인장 제작을 신청 받았고, 간호대학은 마송이(간호 98) 동창이 직접 만든 퀼팅 가방과 브로치 등을 준비했다.

기독교학과는 동창 기업의 액세서리 제품을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아, 동창들로 온종일 장사진을 이뤘다. 섬유예술과에서도 헤어 액세서리, 화려한 비즈 머리띠와 헤어핀을, 독문과에서도 액세서리와 가방류 판매 대열에 동참했다.

한편 생명과학과에서는 과 분위기에 맞는 반려식물을 준비해서 눈을 즐겁게 해줬다. 정원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오영미(생명 87) 동창이 직접 심고 동창들이 분양받아 키운 풍란 등의 화초였다. 성악과 동창들은 곰돌이 인형을 인기리에 판매했다. 제품을 구매한 학생과 동창에게 환영 배지를 달아주며 차기 동창 포섭에 나선 성악과의 ‘릴랄랄’

장터’는 파는 사람의 흥겨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천막’ 아래 동창 및 재학생,

교직원 응기종기 모여

이번 바자회에서는 재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대면 행사에 대한 경험이 적은 코로나 학번인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대동제 같은 바자회에 관심을 보였고, 풍성하고도 저렴한 먹거리와 핫한 아이템에 눈을 반짝였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재학생들은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신비한 천막 아래로 모여들었고, 동창들은 후배들을 반기고 먹이며 선후배의 정을 쌓았다.

바자회장 입구에 설치된 감각적인 진노랑색의 푸드 트럭에 지나가던 학생들이 순식간에 줄지어 섰다. 국내 도넛 브랜드로 MZ세대에 인기 있는 ‘노티드 도넛’이다. 재학생들에겐 10% 할인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노티드 굿즈인 스마일 풍선과 테디 베어 풍선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은 박소연·서예나·박혜원(이하 영문과 22학번) 학생들은 “점심은 아니고 간식이에요!”라며 먹성을 자랑했다. 도넛 3개들이가 1세트인데 준비한 200세트가 정오 무렵 완판되었다.

사회복지학과의 핫도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새롭게 떠올랐다. 부스가 안쪽에 있어 눈에 띄지 않는데도 재학생들 사이에 SNS로 입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니 SNS <벗들의 맛집>(이화여대 재학생들이 맛집을 소개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소식을 살짝 보여 준다.

<사회복지학과 핫도그랑 아메리카노, 3,000원과 2,000원. 맛있다. 양도 많아서 배불러.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있음. 원래 커피 잘 안 마시

는데… 원두 뭐 쓰시는 걸까, 핫도그 안에 양파랑 피클, 후레이크 많이 들어서 맛있어>라는 글에 학생들이 ‘♥’를 눌렀다.

바자회장 곳곳에서는 핫도그를 손으로 들고 먹으면서도 눈으로는 호기심 가득하게 판매대를 살펴보는 재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핫도그를 들고 먹는 동시에 디저트로 점찍은 문현정보학과의 구슬 아이스크림 대기 줄에서 있는 학생의 모습도 미소를 띠게 했다. 준비한 구슬 아이스크림 300개가 모두 완판되었다며 녹초가 돼 함박웃음 짓는 동창들이 정겹다. 바로 옆 가정관리학과가 내놓은 스콘 맛집 ‘카페 레이어드’의 귀여운 곰돌이 스콘과 딸기잼 음료로 구성된 런치 박스도 눈길을 끌었다.

온·오프라인 연합 판매

이번 바자회는 온·오프라인의 연합 판매가 빛을 발했다. 온라인으로 홍보와 함께 사전 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맛보고 착용하는 제품 위주로 공략하는 양면 전략을 펴서 진화하는 바자회 형태를 보여 주었다. 뜨거웠던 해가 기울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파장 무렵이 되자 곳곳에 품절을 붙여 놓고 매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부스가 보였다. “무거워서 도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읍소와 ‘마감 파격 할인’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그을리고 익어버린 동창들은 수고한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창과 학생, 교직원 등 이화의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고 어우러졌던 총동창회의 대바자회를 마무리 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황화방 재개업 감사예배

두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 마치고 교류와 쉼, 상생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1층에 자리한 황화방이 약 두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9월 12일(화) 재개업 감사예배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열었다. '황화방'은 초기 이화학당이 자리한 정동의 옛 지명으로, 봄이 오면 배꽃이 소담하게 피어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한다. 고 김정옥(문과 36) 총동창회 고문은 '황화방 안에 천국이 예라'라는 교가의 구절에 영감을 받아 이 공간의 이름을 황화방이라 지었다.

1997년 동창회관 건립과 함께 5월 첫 영업을 시작한 황화방은 커피, 김밥 등 간단한 먹거리와 문구류 등을 판매하며 총동창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2020년 3월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창들의 사랑방으로, 학생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공간이다.

재개업식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 이정화(독문 74)·정은실(경영 88) 감사,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무, 이수은(한음 02) 사업부장, 김구슬(법대·법전원 93) 재정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황화방 리모델링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이명경



전통과 새로움을 조화롭게 표현한
황화방 로고

총동창회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를 함께 부른 뒤 갈라디아서 5장 22~26절 성경 봉독에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임기 초인 3월부터 공사를 생각하고, 5월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부터 공사를 본격화했다”면서 “황화방이 이화 동창들을 위한 즐거운 교류의 공간, 학생들의 쉼을 위한 둥지가 되는 공간, 지역주민을 환영하는 상생의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안선희 교목실장은 “돈을 주고받으며, 먹고 마실 것들을 주고받을 때, 이것들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이 되게 해주셔서, 이곳이 더욱 건강한 삶을 나누는 곳이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길 소망한다”면서 “황화방에 드는 사람들은 이곳을 전국으로 경험하게, 잠시 머물다 갈 때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1. 갤러리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각종 차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2. 재개업 감사예배를 드린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안선희 교목실장 및 총동창회 임원진



마다 친절하고 온화하여 자꾸만 생각나고, 오고 싶은 곳이 되게 해주시길”이라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재개업한 황화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황화방이라는 옛 지명과 동창)과 새로움(학생)을 조화롭게 표현한 로고이다. 로고를 만든 디자이너 여승연(디자인대학원 디자인경영 전공) 씨는 “전통과 새로움의 조화는 물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이화의 정체성을 담으려 했다”면서 “글자 주변 문양은 떡살무늬에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떡살무늬 문양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을 연상케 한다”며, “주님의 살과 피가 이곳에 있는 모두를 은혜롭게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미를 더했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작은 모임방을 없애고 공간을 하나로 넓게 트는 게 1차 목표였다. 그 뒤 출입구와 길거리쪽 유리창에 붙여 놓은 스티커를 떼고 청소하자, 창문 가득 축복처럼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좌석도 여유롭

게 배치해 갤러리에 들어온 듯 실내가 더욱 편안하고 쾌적해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임원진은 공간 배치는 물론 조명, 그릇, 탁자, 의자 하나까지 의견을 나누며 세심히 골랐다. 단아하고 심플한 그릇과 식기류는 한은주 부회장이 발품 팔아 구매했고, 꽉은아 부회장은 공간 구성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탰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원래 있던 분위기와 어울리면서도 새것의 반짝임을 빛내고 있는데, 황화방이 추구하는 가치, 즉 전통과 새것이 적절하게 녹아들어 어우러졌기 때문일 것이다.

5년 이상의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자격증을 가진 임승희 점장이 내린 고급 원두의 맛있는 커피를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는 스페셜 커피와 블렌딩 커피, 에이드, 라떼, 스무디, 냉쇼, 허브티, 주스 등 각종 음료와 쿠키 등이 메뉴로 올라 있는데 유명 김밥집 및 샌드위치 전문점과 협의를 거쳐 곧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다. 김경령 총무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구매할 수 있는 해피 메뉴를 만들 계획”이라고 알렸다.

황화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문을 열며(단, 행사가 있는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황화방 이용 시 주차 할인권(2시간에 1,000원)을 구입할 수 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황화방 수익금은 장학사업, 모교발전기금 등으로 사용된다”면서 “동창 및 학생, 지역주민이 이곳에서 건강한 먹거리와 친교를 나누며 이화 발전에도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곳이 동창들과 학생,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이화 동산 안에 명물로 자리잡길 바란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편안한 교류와 쉼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황화방



'2023 동창의 날' 감사 모임을 연 총동창회.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2023 동창의 날' 감사 모임

식탁의 교제를 즐기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 나눠

총동창회는 7월 8일(토)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3 동창의 날' 감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지난 5월 31일(수) '동창의 날' 행사를 위해 정성스러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창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임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이경숙(영문 70)·남상택(물리 74) 고문, 임진(작곡 72) 이올 연합회 회장과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 2023년도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등 이올 연합회 회원,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각 대학 학창팀 등이 참석해, 뷔페식 오찬을 즐기며 소회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승애(체육 95)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모임은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와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감사 인사, 오찬, 동창의 날 평가, 레크리에이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감사 인사에서 "동창 및 선후배들의 사랑의 수고로 '동창의 날' 행사가 순조히 갈무리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여러모로 애써 주신 여러 동창들과의 만남을 기도와 설렘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부디 기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뒤 동창의 날 평가 순서를 갖고 테이블마다 돌아가며 동창의 날 행사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 등 후기를 공유했다. '올해의 이화



1



2



3

1. 몸풀기 운동과 함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긴 참석자들
2. 정자영 동창의 스페셜 무대가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3. 참석자들은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을 들며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인’ 테이블에서는 “이번 동창의 날에서 ‘올해의 이화인’들이 전통 가운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한 ‘영원한 이화인’ 테이블에서는 “고급 당의를 보관만 하자니 아깝다”며 후배 기수 ‘영원한 이화인’들에게 물려주는 방법, 홀날 수의 대신 입는 방법 등 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했다.

이어 “한 달 반 동안 합창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것에 비해, 정작 행사 순서가 뒤쪽이라 더 많은 동창이 관객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조형예대 합창단은 “합창 연습 공간이 마땅치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총동창회가 교내에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988년 창단되어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대·법전원 합창단에서는 “법전원 전환 이후로는 후배 단원들이 입단하지 않아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스물아홉 명이 겨우 모여 대회에 출전했는데 내년에는 합창제에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평가를 마친 후에 ‘2023년 맨해튼 국제 음악 콩쿠르’ 현대음악상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시상식 7월 15일)한 ‘올해의 이화인’ 정자영(성악 93) 동창의 스페셜 공연이 이어졌다. 정 동창은 풍부한 성량과 훌륭한 보이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함께 자리한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총동창회 정은영(체육 15) 간사가 준비한 다양한 퀴즈를 풀고 게임을 하며 선후배 동창들이 오랜만에 흥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
1970년대 최고의 디바이자 서양화가
정미조 동창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선택의 순간, 중심이 되어준 ‘이화’



“졸업 이후 51년 만에 돌아온
모교에서 나의 예술 세계의 흔적을
보여 주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정리하기에 이대만큼
딱 맞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

‘음악을 보고, 미술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미조(서양 72) 동창의 이력은 선구적이다. 5월 17일(수) ‘이화, 1970, 정미조’(10월 31일까지 이대박물관에서 전시) 개막에 맞춰 열린 <세대공감 콘서트>는 정 동창의 진가를 유감없이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모교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가수로서 그녀의 음악 인생을 엿볼 수 있었으며, 화가로서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이화에 헌납하는 의미를 들을 수 있었다. 반세기도 훨씬 전인 1968년, 서양화 전공으로 이화에 입학한 정 동창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수의 길을 열어 준 이화. 정 동창에게 이화는 화가로서 뿐리이며, 가수로서 음악 인생을 살게 한 ‘개여울’의 출발이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기숙사에서 만난 선배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시작이었다.

“진관 209호. 돌집이라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정말 시원한 곳이었죠. 부산과 대구에서 올라온 3, 4학년 선배와 같은 방을 썼어요. 언니들 앞에서 양 송을 불렀는데 마침 신입생 환영회에 진관 대표로 노래 부를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저더러 나가라고 한 거예요. 기숙사생 전원이 모인 중강당 무대에 선 것이 첫 무대였네요.”

얼마 후 학생처장님의 호출을 받게 됐다. 거기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고, 학교를 대표해서 외부 행사에 나가게 되었다. ‘노래 잘하는 미대생’ 소문이 나자 학교 행사에도 자주 초대되었다. 학교 부



51년 만에 돌아온 모교에서 자신의 노래와 미술에 대한 열정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는 정동창은 개막식에 맞춰 콘서트를 열었다



김은미 총장 등 내외빈 앞에서 전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동창

활절 예배에서는 전교생이 모인 대강당 무대에서 가스펠을 불렀다.

“2학년 메이데이 행사 때였어요. 당시 최고의 히트 가수 패티김 선생님이 초대 가수로 오셨어요. 토요일 저녁 9시 30분 골든타임에 ‘패티김 쇼’가 있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분이셨죠. 그런 분이 제 노래를 들으시고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내가 특별히 너 매주 게스트로 노래하게 할 테니까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달콤한 제안이었다. 이후에도 가수로서의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외부에 이화여대에 노래 잘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레코드 회사에서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하자는 제안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미조 동창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교칙으로 인해 거절하게 됐고, 그녀는 학생의 신분을 지켰다.

졸업과 함께 시작된 가수 활동

졸업 후 음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50%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인기 프로그램 TBC(현

KBS) <쇼쇼쇼> 출연을 시작으로, 여러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아 가며 가수로서 입지를 굳혀갔다. 실력도 좋았지만 운도 따랐다.

그해에 신인가수상, 그 이듬해 데뷔 2년 차에 10대 가수 반열에 오르며, 성공적인 가수 생활을 이어갔다. 1978년도 국제가요제에서 최우수 가창상까지 받으며 가수로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데뷔 후 7년 동안 승승장구했다.

당차고 화려한 외모, 시원시원하게 웃어넘기는 대범함, 애를 끓게 하는 묘한 울림의 목소리까지. 20대 젊은 가수, 정미조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앙드레김 드레스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범상치 않은 기운, 짐작하기 힘든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은,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개여울>의 가사처럼 알 듯 말 듯 한 그녀의 음악 세계가 있었다.

“가수를 시작할 때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히트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겠다’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단지 맨날 학교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너무 갑갑해서 제대로 된



정미조 동창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전시된 공간



1970년대 활동하며 입었던 고급 무대 의상을 모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드레스를 입고, 악단에 맞춰서 노래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꿈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개여울〉을 시작으로 〈휘파람을 부세요〉, 〈불꽃〉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부르고 싶은 곡들을 부를 만큼 다 불렀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일찍 떠나보낸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정 동창은 다시 자신의 전공인 미술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떠나자고 결심했다.

다시 미술 전공자로서의 삶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불어를 들었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배웠어요. 그래서 파리 유학 결심 후, 불어 학원에 갔는데 옛날 대학 시절 생각이 나면서 재미있게 불어를 배우고 1979년도 파리로 떠났죠. 남들은 다들 그래요. ‘인기 절정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 자르듯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처음부터 명성을 얻다 보니까 쉽게

그 명성도 그냥 휙 버리고 떠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힘겨웠다. 끊임없이 그녀에게 찾아왔던 행운, 노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가수 생활과는 달랐다. 파리에도착하자마자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다.

“이론 과목 수업에서는 말을 얼마나 빨리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강의 내용을 녹음한 다음 집에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사전 봐가며 공부했어요. 그냥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석사 과정을 마친 후, 500여 페이지가 넘는 논문으로 파리7대학 박사학위를 받는 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피나는 노력 끝에 논문 심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며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논문 심사 발표를 듣는 순간 그녀는 인생 처음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그녀는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과 교수로 22년간 재직 후 정년퇴임

했다. 학생 시절 수많은 러브콜에도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하게 한 것은 ‘전공과목’이라는 고지식한 생각이 한 몫을 했다.

“사실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고,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공을 꼭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내 전공은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림을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이었죠.”

정미조 동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만큼은 노력을 따라 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 다. 그럼에도 이룬 성과 앞에서

는 정직하고 순수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진심이 지금까지 정 동창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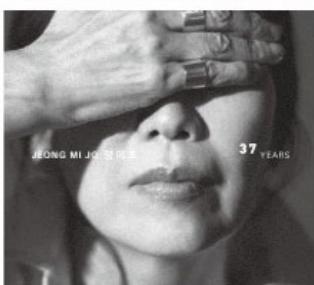
51년 만에 돌아온 모교

이화여대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하면서도 그녀는 아깝지 않았다.

“내가 이제 뭐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저세상을 가도 이화여대 박물관에 가면 정미조의 야경 작품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죠.”

이번 전시 준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화실의 작품들을 다 끄집어내 보니 드로잉 작품만

1만여 점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미술 전공



정미조 동창의 앨범들

자로서 열정 넘쳤던 그녀였다. 자신의 처음 시작을 함께한 이화야말로 그녀의 회고전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지난해, 어디에서 나의 회고전을 하면 좋을까 찾던 중이었어요. 그때 누가 모교 박물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적극 추천해 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만족해요. 1972년 졸업 이후 51년 만에 이화에 돌아온 거예요. 반세기가 지나서 돌아온 모교에서 그동안 나의 예술 세계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정리하기에 딱

맞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1970년대를 사로잡았던 최고의 디바. 가수이자 서양화가 정미조 동창. 반세기를 지나 다시 돌아온 곳은 이화였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중심이 되어준 바로 그 ‘이화’였다. ‘삶이란 즐거움보다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미술 작품으로, 노래로 우리에게 전하는 정 동창. 2020년 발표한 앨범 <바람 같은 날을 살다가>는 그녀의 삶이 다다르는 그 지점 어딘가, ‘어떤 후회도 미련 하나 없이’ ‘오직 자유로움만 이’ 그녀의 ‘마지막 꿈’인 것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은정 동창

“평생 공부하는 학자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행운”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인 데다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독일에서 산 세월이 더 긴 오늘의 주인공을 국내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으리라 지레짐작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침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의 서머스쿨 일정으로 8월 하순 무렵 귀국할 예정이라며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한국의 지역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라는 주제의 서머스쿨이다 보니 학생들을 인솔해 전라남도의 주요 도시에서 시작해 세종시와 서울의 국립통일교육원까지 종횡무진하는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또 국내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잡혀 있었다. 이런 빠듯한 일정 중에도 ‘이화 동창’이라는 말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이며 2023년 2월 모교 명예졸업장을 탄 이은정(정외 82 입학, 23년 명예졸업) 동창이다.

막스 베버 학문의 산실 하이델베르크를 가슴에 품다

1982년 모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이 동창은 2학년을 마치고 1984년 4월, 독일 괴팅겐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3학년에 올라간 지 한 달 뒤에 떠난 셈이니 유학 결심은 그 전부터 서 있었을 터. 무엇이 이 동창에게 유학을 결심하게 만들었을까?

짐작대로 그 출발점에는 모교 정외과의 진덕규 교수(현 명예교수)가 있었다. “1학년 때 진덕규 교수님이 <정치학개론>을 가르치셨는데, 공부에 관한 한 워낙 철저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첫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긴 도서 목록을 나눠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믿었던 저는 1학년 때 거기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 책 중에는 이 동창의 마음을 사로잡은 막스 베버의 전기도 있었다. 베버의 삶과 학문에 매료된 이 동창은 막스 베버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 가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마침 2학년을 마치자 진 교수님은 이 동창에게 영국이나 독일로의 유학을 권했고, 그렇게 이 동창은 독일 괴팅겐대학교로 유학길에 올랐다.

물론 유학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유학이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줄로만 알았지 살려 가는 줄

은 모르고 옷과 책만 챙겨갔다”던 이 동창의 회고처럼, 의식주부터 모든 살림을 스스로 해결해야하고 더군다나 독일 기숙사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 처음에는 고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 동창의 학구열을 꺾지는 못했다. 유학생 어학 시험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정도로 한국에서부터 독일어를 잘하는 편이긴 했어도 독일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공부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동창은 ‘독일 학생들에게 지기 싫은 마음’으로 ‘죽어도 따라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괴팅겐대학교 1학년 1학기 <정치학개론> 수업에서 작센 지방 방언이 심한 데다 말까지 더듬는 교수의 독일어 강의를 따라가느라 울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일화를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의를 녹음해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며 훈련한 덕분에 어떤 독일어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게 되었다고.

하나의 배움을 더 큰 배움의 마중물로

학구열이 그토록 강했던 이 동창이었으니, 방대한 양의 공부가 필요했던 전공 공부도 힘겨움보다는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이 동창에 따르면 괴팅겐대학교 정치학과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초점이 거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이론 및 인접 이론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이해하려면 유럽 역사나 유럽 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정치학, 사회학, 민속학 등의 학문을 넘나들며 그 많은 수업을 다 듣고 따라가는 일들이 벼겁기도 했을 텐데, 이 동창은 오히려 ‘국내 번역서를 읽으며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여기에서도 이 동창의 참스승 진덕규 교수의 영향력이 빛을 발했다. 진덕규 교수 가 읽혔던 책들이며 이야기했던 이론들의 원류가 독일 사상이었다는 점이 이 동창에게 더욱 동기부여로 작용했던 것. 하나의 배움을 더 큰 배움의 마중물로 삼는 이 동창의 학구열 덕분이었을까, 이 동창에게는 빛나는 성취가 여럿 찾아왔다. 독일에서도 저명한 정치사상사 연구자로 자리 잡아, 역사상 아시아인 최초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학술원(구 프리시아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임명되고,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역사문화학부 학장을 맡은 최초의 아시아인 여성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그렇게 공히 인정받는 자리에 이르기 까지 이 동창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 텐데, 이 동창은 시종 “노력도 있었지만 운도 좋았다”는 겸손의 태도를 잊지 않았다.

독일에서 정치사상사 연구자로 인정받은 이 동창은, 독일 통일의 현장을 가까이서 본 만큼,



독일 대통령 방한 당시 특별수행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 동창은 경복궁에서 산책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설명했다

남북협력이나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를 파악해온 남북관계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동창에게 이와 관련된 소견을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통일을 준비시키고 싶다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꿈을 꾸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1980년대 통일 이전의 서독에서 지낼 때, 이 동창 주변의 독일 친구들은 동독이나 통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독일 젊은이들이지만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분위기 없이 자기들이 떠맡아야 할 또 다른 사회변화라고 여겼다고. 다시 말해, 젊은 세대에게 정해진 통일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우선 그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해주면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서 통일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모교와의 학술 교류에도 중추적 역할 담당

이 동창이 처음부터 한국의 분단 문제에 정통했던 것은 아니었다. 독일 통일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독일을 방문할 때 계속해서 통역을 맡았던 이 동창은 그러면서 ‘오래 잊고 살았던’ 한국의 문제에 대해 새삼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더욱이 당시 이 동창

의 교수 자격심사 논문 주제가 ‘독일 정치 사상사에 나타난 동아시아관’이어서, 동아시아 관련 글을 많이 쓰게 되고, 자연히 동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이자 모국인 한국도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이력 덕분에 이 동창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베를린자유대학교의 한국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학연구소를 유럽 한국학의 중심지 중 하나로 키워오기도 했다. 물론 한국 출신으로 동아



2017년 베를린자유대 총장단이 모교를 방문했을 때 사진

시아 관련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본디는 정치학 연구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한국학 교수직은 다소 생경한 제의이기도 했을 텐데, 한국학 교수직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가 궁금했다. “당연히 저는 정치학 교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저한테 한국학과 교수 초빙 제의가 온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제의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베를린이 제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학교 다닐 때, 독일 통일 이전에는 베를린에 한 번도 가보지 않다가 통일 이후 통역을 하면서 베를린을 굉장히 자주 다녀왔는데 그 때마다 도시의 변화가 눈에 띠더라고요. 그런데 베를린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에서 제의가 오니까 내심 좋았죠.”

당시 이 동창은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최초의 교수였다. 2005년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지만 소장도 학과장도 교수도 한 명 없이 한국어 어학 선생님이 모든 걸 대행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극소수인 학과였다.

그렇게 출발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가 지금은 학생수 300명의 규모로 성장했고, 독일 내 한국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6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의 진학 동기도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처럼 한국학의 세가 불었지만, 이 동창이 보기엔 한국학은 여전히 ‘마이너한’ 분야이고, ‘이국적이어서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된 것이지 세계적 주류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동창이 최근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 분야도 이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한국학과 공동 연구로, 유럽의 청소년 세대에서 어떤 유형이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유형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이고, 또 하나는 이 동창 단독 연구로,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분석이다.

이 동창이 교편을 잡고 있는 베를린자유대학교는 모교와의 학술 교류가 매우 활발한 학교이기도 하다. 모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양국을 오가며 교수 간 다양한 학술 논의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교수 간 한독교수학술 워크숍 개최와 교환 교수 제도의 활성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동창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자, “너무 주어진 틀에 얹매이지 말 것과 틀 밖의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말 것”을 주문했다. “20대 초반에 다른 세상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세상은 상당히 열려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틀 밖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자라는 직업에 매료되어 지금까지도 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이은정 동창.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된 것이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말하며 선한 미소를 짓는 그에게서 “학문의 즐거움이란 끈기와 인내, 끊임없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라고 말한 위대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말이 떠올랐다.



2022년 10월에 입학한 한국학과 신입생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사진으로 2023년 연하장을 만들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카니누와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본국 사역 기간에 온라인으로 네 차례 (2022년 8월, 11월, 2023년 2월, 5월) 카니누와어 번역자들과 만나 마태복음 전체와 요한계시록 절반의 초역을 점검하며 수정했습니다. 점검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점검하는 동안 그리고 점검을 마친 후 정리하기까지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국 사역 기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번역을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동역자를 만나 사역 소식을 나눌 때마다 “어? 선교사님, 안식년 아니세요? 무슨 일이 그리 많아요?”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본국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에 더해 번역 사역까지. 솔직히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고난 주간과 부활절 기간에 마을 교회에서 마태복음(카니누와어 번역본)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최종 점검 단계인 자문위원 점검도 아직 안 받은 미완성의 카니누와어 번역본을 읽는다?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만큼 카니누와어로 번역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카니누와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구나. 이 갈급함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도 번역자들도 힘들었지만, 온라인 점검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마태복음 점검과 수정을 부활절 전에 마치게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책과 사이먼이 알로타우로 나왔습니다. 사이먼은 공식적인 번역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마을에서 번역된 말씀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할 때 성실하게 참여해 온 형제입니다. 책, 레비와 함께 온라인으로 점검할 때보다는 속도 면에서 여유모로 느렸지만, 이번에 계획했던 요한계시록 1~11장 초역을 잘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알로타우에 나와 있던 리넷도 이를 간 점검에 참여해 주어 두 형제와 저희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오해하실 듯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 “아~ 그럼 신약 번역이 끝났구나”라고 하실 듯싶어서요. 성경을 번역할 때 어느 책을 먼저 번역하느냐는 본문의 난이도와 사용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기에 종족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카니누와 종족의 경우, 신약에서는 복음서 중 분량이 가장 적은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번역했고, 이어서 누가복음, 요한1, 2, 3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번역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약의 61%가 초역이 끝난 상황입니다(구약은 신약성경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구약의 12% 정도를 번역했고 자문위원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막연히 ‘요한계시록 번역은 어려울 거야. 어느 세월에 번역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팀이 초역을 끝낸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 지금까지 번역한 책들보다 몇 배는 더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인즉,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저희에게 그리고 카니누와어 번역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당분간 요한계시록 말씀에 푹 빠져 지내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책은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거나 공부한 적이 없었다며 요한계시록 번역이 속히 완성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니누와 사람들과 함께 읽고,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흥분하면서 얘기하던지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쓰인 단어들입니다. 한국어로는 짧게 표현되는 단어가 카니누와어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2절 같은 구절이 그렇습니다. 한국어로 짧게 두 줄인 구절이 카니누와어 초역으로는 세 배가 넘게 길어졌네요. 아마도 카니누와어 번역이 끝나 신약성경을 출판하면 그 두께는 한국어 신구약 성경책 전체의 두께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어와 일대일로 딱 맞는 카니누와어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때론 불가능해 보여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번역을 해왔으면 익숙해지고,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번역이 오래 걸릴 듯 보입니다. 저희를 포함해 잭, 레비 그리고 마을에서 번역된 말씀을 점검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
도
해
주
세
요
- 저희는 곧 캐나다에서의 본국 사역을 마무리 짓고, 호주를 경유해 파푸아뉴기니로 복귀합니다.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는 여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 마을 번역팀이 디모데전후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해서 번역하게 하소서.
 - 마을에 있는 저희 집이 낡아서 이번에 다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 건축 자재인 통나무, 대나무와 코코넛 잎 등을 숲에서 구해 와야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안전하게 지어지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조선향(생명 95, 파푸아뉴기니)

추억과 울타리, 삶의 지렛대로 간직한 우리들의 이화 이야기



왼쪽부터 김정기 교수, 박정민·박랑규·정나영 동창

8월의 어느 주말, 폭염의 더위 속 이화교정에서 박랑규(심리 76) 동창과 그의 '이화 가족'들을 만났다. 이날 만남에는 박랑규 동창과 박 동창의 며느리인 정나영(대학원 상담심리학 13) 동창, 조카 박정민(관현 00) 동창 그리고 박정민 동창의 남편이자 박랑규 동창의 조카사위인 김정기(관현 약) 교수가 자리를 함께해 '이화'에 얹힌 가족들의 추억과 삶을 환기하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랑규 동창의 다른 조카인 박수연(한음 99)·박종인(도예 10) 동창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다. 이 중 대금 연주자인 박수연 동창은 국내·일본·유럽 등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이화를 빛내고 있다.

가족들에게 소통의 고리가 되어준 '이화'

가족 가운데 이화와 가장 먼저 인연을 맺은 '1호 선배'인 박랑규 동창은 장애아동치료교육 전문기관인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장과 한국자폐학회장을 역임한 우리나라 장애아동심리치료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평생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교육에 힘을 쏟아온 그녀는 졸업

30주년 대표로 2006년 '동창의 날' 무대에 서기도 했다. 박랑규 동창의 삶에서 이화는 매우 소중한 터전이다. 학부부터 박사를 거쳐 이화여대 언어청각임상센터(현 아동발달센터) 연구원으로 그리고 교육학과 겸임교수로 무려 30년 넘는 오랜 세월을 이화와 함께해왔기에 그녀에게 이화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화와 맺은 제 인연도 깊은 데다, 친정 조카 3명, 며느리, 게다가 조카사위까지 이화와 연결된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 이화가 '집처럼' 느껴지죠."

관현악과를 졸업한 조카 박정민 동창은 미국 신시내티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유학한 뒤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비올리스트이자 음대 관현악과 동창회 총무이기도 하다.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대바자회나 성탄예배 등 행사가 열릴 때면 고모인 박랑규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고모, 이번 행사때 오시죠?"라고 물으며 안부를 묻곤 한다.

박정민 동창은 남편인 김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음악인이자 이화라는 매개가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나눌 이야기가 많고 풍부한 편이에요"라고 말하

며 두 사람의 듀오 연주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여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가졌던 두 번째 듀오 리사이틀은 <영혼의 구슬(Soul Bead)>이라는 타이틀로 꾸몄다. “북미 어느 인디언들에게는 목걸이를 만들 때 흡집 난 구슬 하나를 일부러 넣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죠. 호른과 비올라의 양상을 이 얼핏 보기엔 부조화일 것 같잖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잘 채워 주면서 조화를 만들어 왔던 저희 부부의 지난 세월을 음악에 담고 싶었어요.”

이화 그리고 음악이라는 두 가지 색의 줄을 엮고 그 줄에 기대어 한 개씩 한 개씩 구슬을 끼어가는 이 부부의 여성 속에서 이화의 ‘딸과 사위’가 살아가는 소박하고 견실한 행복을 엿볼 수 있었다.

김정기 교수는 박정민 동창의 남편이자 모교 관현악과 교수로서, 강사 시절부터 이화와 1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화의 사위’이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호른을 전공한 김 교수는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원주시립교향악단 호른 수석을 거쳐 지난해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내의 모교와 인연이 닿아 기쁘죠. 아내가 누비던 캠퍼스와 강의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무래도 느낌이 남다릅니다.”

김 교수는 “학창 시절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선배 교수님들이 저를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이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무의식중에 ‘우리 학교’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라는 말로 ‘이화의 사위’로서 이화에 대한 마음의 친밀감을 표했다.

박랑규 동창의 며느리인 정나영 동창은 뉴욕주립대 버팔로(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를 마친 후 현재 이대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고 있다. ‘심리학’과 ‘이화’라는 키워드를 함께 공유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여서인지 주고받는 대화의 소재도 여느 고부 사이보다 다채롭고 풍부해 보였다.

발달임상학 분야의 전문가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비올라와 호른으로 예술적 동반자의 길을 걷는 음악가 부부, 모교 행사 일정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챙기는 고모와 조카딸! 이들 가족의 삶과 일상 속에 ‘이화’가 은은하고 담백한 소통의 고리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언제나 그리운 이화의 추억

이화에 뿌리를 둈 가족들의 만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화에서 보낸 학창 시절의 추억담이 흘러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화 생활의 추억으로 박랑규 동창과 박정민 동창 모두 채플을 꼽았다. 박랑규 동창은 “1970년대에는 김옥길 선생님이 총장으로 계셨어요. 매주 대강당 채플에서 김옥길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남녀를 떠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학생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라고 채플에 대한 추억을 회상했다.

조카 박정민 동창은 “채플 강연과 연주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채플이 있는 날 아침이면 늦지 않으려고 대강당 앞 언덕길부터 계단까지 뛰어 올라 가곤 했어요. 숨이 턱에 닿도록 죽을 힘을 다해 계단을 올랐는데 바로 코앞에서 대강당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허탈했죠”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화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그래서 미

소 지으며 떠올릴 법한 추억담이다. 이화의 채플은 70대의 고모와 40대의 조카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추억의 공통분모가 되고 있었다. 또한 채플이 종교적 의례를 넘어서 이화의 가치와 문화를 배양해내는 소중한 상징성이 담긴 이화만의 문화적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의 한켠에는 지금은 ECC로 변모한 대운동장에 대한 추억도 자리하고 있다. 박정민 동창은 “그때는 과별 대항 시합이나 행사가 꽤 많았어요. 1학년 대동제 때 과별 대항 축구 시합을 했는데, 축구공 두 개로 뛰는 시합이라서 이 공, 저 공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스타킹에 ‘꽝’ 나는 친구들도 여럿이었죠. 시합에서 이기고 나서 선배 언니들 따라 신촌 기차역 근처 고깃집에서 불고기도 실컷 먹고, 재밌고 신났었죠”라며 난생처음 축구를 했던 경험을 들려주었고, 박랑규 동창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야구도 많이 했어요. 70년대인데 여학생들이 야구를 했다니까요”라며 추억을 보탰다. “남녀공학을 다녔다면 아마 여학생 축구대회를 쉽게 해보진 못했을 것 같아요”라는 박정민 동창의 말에는 이화라는 공간이 학생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이화다운’ 그리고 ‘이화인다운’ 체험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한 소박하고도 상징적인 답이 담겨 있다.

박정민 동창에게는 아름다운 교정을 놀이터 삼던 또 다른 추억이 있다. 이화 동창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법한 이화 교정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이 그것이다. “지금도 이화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캠퍼스의 풍경이랑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생각나요. 가끔 친구들하고 집에서 싸온 밥이며 나물로 잔디밭에 둘러앉아 비빔밥을 비벼 먹었어요. 웃고 떠들면서 교정을 바라볼 때면 오래된 석조건



2006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 30주년 대표로 뽑혀 연설한
박랑규 동창

물들이랑 우거진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건물들이 어찌 보면 역사의 유적 같은 느낌도 나고, 그 느낌과 기억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이 종종 떠올라서 남편 (김정기 교수)에게도 몇 번인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잔디밭에서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고풍스러운 석조건물과 아름다운 오솔길들이 계절을 바꿔가며 빛어내는 생생한 풍경이야말로 이화인들에게 때때로 떠오르는 마음속 안식처이자 그리운 그 무엇 일지도 모르겠다.

삶 속에 투영된 섬김과 나눔의 이화의 가르침

가족들의 삶에는 이화가 남긴 다양한 자취가 녹아 있다. 박랑규 동창은 이화를 통해 중요한 삶의 지렛대가 되어줄 소중한 가치와 경험을 얻었다. “학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이화의 정신은 ‘자유’였던 것 같아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 주었죠. 제가 장애아동과 더불어 그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일에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되짚어 보면 이화에 빛진 게 많아서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했던 1980년대에 이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어청각임상센터(현 아동발달센터)를 발족했어요. 그곳에서 일했던 20여 년은 제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보교에 늘 감사함을 갖고 있죠.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장애아동치료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왔는데, 아마도 이화에서 배운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섬김과 봉사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두가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이고, 그것을 이화를 통해 배우고 실천해온 셈이죠. 이화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정나영 동창도 임상심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화의 역량을 느낄 때가 많다. “심리학 분야 전반에 많은 이화 선후배들이 계세요. 학계에서도 이화여대가 상담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학교와 동창들이 좋은 평판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 입고 있죠.”

김정기 교수 역시 음악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국제 뮤직페스티벌에 멘토로 참여해 장애아동들에게 음악을 지도하고 함께 연주회를 열고 있다. “8년 전쯤 평창에서 열렸을 때 처음 참여했어요. 장애아동들은 아무래도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기를 힘들어하죠.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음악에 익숙해지고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자신의 신호에 맞춰 서툴게나마 호른을 부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눈물을 글썽거리며 기쁘게 지켜보는 부모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 교수는 앞으로도 이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화의 자양분은 박정민 동창의 경험담에서도

묻어났다. 그녀는 학창 시절 수강했던 여성학이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 형성에 아주 큰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교양과목으로 여성학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새롭게 접하는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정말 몰입해서 그 수업에 푹 빠졌었죠. ‘여자는 아래야 한다, 남자는 아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됐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소의 차별이랄까 부당함이랄까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과 자세로 받아들이고 해쳐나갈 것인지 고민이 될 때 여성학에서 배웠던 문제의식이 제 안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줬어요.”

여성주의적 가치는 그녀의 음악가로서의 여정에도 깊이 스며 있었다. 박정민 동창은 “제 안에 자리 잡은 젠더에 대한 인식이 음악가로서 제 길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만들어 주는 단단한 뿌리처럼 받쳐 줘 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화인으로서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은 게 바로 그런 ‘영향력 있는’ 수업이었어요”라고 말하며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배움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삶의 울타리가 되어준 이화, 동창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길

박랑규 동창은 이화 동창이 전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디서나 이화인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이화에서 공부했던 인연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리 삼아 서로에게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 주고 있다고 했다.

“남편(전 한양대 금속재료공학과 교수)이 노스웨스턴 대학에 방문교수로 갔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미국에서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이화 동창을

만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 따뜻하게 마음을 써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이화의 울타리구나’라고 느꼈죠. 해외에서 이화 동창을 만났을 때 이화의 결속력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 주는 이화인들의 모습에 대해 정나영 동창도 자신의 경험을 더했다. “이대서울병원에는 많은 심리학과 선후배들이 계세요. 다른 전공 분야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알음알음 한두 다리만 건너면 언제라도 도움 청할 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제 주변에 계시는 셈이고, 일을 해나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이에 덧붙여 박정민 동창도 “저 역시 주변에 음악계에서 활동하시는 이화 동창이 많아서 늘 듣는 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인천시향에도 이화 선배님들이 계시고, 당연히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잘해야 앞으로 후배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얻은 게 있는 만큼 나도 학교를 위해 돌려줄 게 있다는, 빚을 갚는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라고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듣든한 베풀이 되어 주고 있고, 그러한 경험이 세대를 이어 이화인들의 ‘소박한 사명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재 관현악과 동창회 총무인 박정민 동창은 총동창회 활동과 함께 음악대학 동창회가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동창들의 음악적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화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2000년도에 창단해 올해로 23년의 역사를 가진 이 오케스트라는 “관현악과의 김기순

(현 관현악과 명예교수, 플루티스트) 선생님이 ‘이화 음악’의 뿌리를 이어가고 졸업생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매년 음대 졸업생들이 모여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어요. ‘이화 챔버’ 덕분에 졸업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니 연주회 준비 과정 자체가 작은 동창회나

다름없죠. 20년 넘어 유지되어온 것 자체로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오고, 어렵게 쌓아온 음대 동창들의 경험과 역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이어나가고 싶어요.”

박정민 동창은 음악대학 동창들의 역사가 담긴 의미 있는 오케스트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챔버’의 활동이 다른 이화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올해는 12월 11일에 영산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열 계획이에요. 이번 연주회에 많은 동창이 와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화챔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이화 동창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화’를 간직한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의 울타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지렛대로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간직한 이화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화의 숨결을 발견한다. 박랑규 동창 가족들이 들려준 삶의 이야기들 역시 생동감 넘치게 살아숨 쉬는 이화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김정기 박정민 듀오 리사이틀

Piano 정해연

2022.7.17 SUN 2PM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주 소 221-1, 이동매출기지 부 분 사업·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
전화 031-6420-3000 팩스 031-6420-3001 웹 주소 www.mobilistic.co.kr

박정민 김정기 듀오 리사이틀 포스터

“누가 이 맥켄지를 모르시나요?”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

한운사가 지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1960년대 애절한 사랑의 연속극 주제가였다. 우리 부부가 지난달에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여행을 하면서, 120년 전에 조선 땅, 황해도 소래 마을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젊은 나이에 소천한 윌리엄 존 맥켄지(Willllim John Mckenzie, 1861~1895) 목사의 생가를 찾느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누가 이 맥켄지를 모르시나요?”라고 묻고 돌아다닐 때 이 노래가 생각났다. 토론토의 유영식 교수가 엘리자베스 맥컬리(Elizabeth McCully)가 쓴 맥켄지의 전기『한 알의 밀알(A Corn of Wheat)』을 우리말로 옮기고, 주인공인 맥켄지를 그리며 여러 번 다녀온 그 길이건만 그의 생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캔소 해협을 건너 케이프브레顿 섬에서 마블 마운틴으로 가는 시골길에 ‘Mackenzie Point Rd.’ 팻 말이 번쩍 눈에 띄었다. 그 근방을 서성이다가 드디어 맥켄지 선교사의 종손 남매를 차례로 만났다. 오솔길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보트 정비공장을 하는 사우어 씨를 통해 맥켄지의 종손자 아이반 맥켄지를 만나게 해주었고, 클리블랜드 우체국에 들어가 “누가 이 맥켄지를 모르시나요?”라고 물었을 때, 텅 빈 시골 우체국 안에서 마치 우리를 기다

리고 있는 듯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반기며, 자기가 맥켄지의 종손녀 비벌리라고 했다. 우리가 만나려는 아이반의 친누나였다.

이런 우연과 행운이 또 있을까? 우리는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비벌리는 여러 해 전에 은퇴했으나 그날따라 우체국 사정상 임시로 나와 있었다는 것. 우리는 27년 전에 고향에 돌아온 아이반의 2층 통나무집에서 환담을 나누고, 맥켄지 선교사의 생가 터로 안내를 받았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 다시 들렀더니, 비벌리는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쓴 맥켄지 전기를 찾아들고 나와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보물처럼 탐독하며 아끼다가 결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책장을 넘기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했다.

윌리엄 존 맥켄지는 청청한 소나무 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푸른 솔잎 향기가 그가 태어난 브라도호(Bras d'Or Lake)의 솔밭 언덕에서, 그가 공부한 헬리팩스의 파인힐 신학교에서,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고귀한 생을 마친 조선 황해도 소래 마을(솔밭 마을)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브라도호(Bras d'Or Lake)에서 민석홍 장로와 함께한 윤경남 동창(오른쪽)



맥켄지의 생가 터인 언덕에서 맥켄지의 종손 아이반과 함께

‘우리에게로 와 주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따라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갔듯이, 맥肯지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미지의 땅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황해도 장연군 소래 마을에서 오직 예수를 따라 가진 것 없이 살다가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이다.

그는 조선사람 옷을 입고 초가집에서 살며, 언더우드 박사 부인이 성탄 선물로 보내준 서양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양실조와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소래 마을에서 2년도 안 되어 고귀한 삶을 마쳤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서울에 있는 에비슨 박사에게 왕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기포드 목사에게 그동안의 보고와 지원을 요청한 친절한 편지를 유서로 남겼다. 그러나 그가 다닌 파인힐 신학교 채플에 붙여 놓은 한국선교 파송 100주년 기념 동판은 1998년에 만든 것인데 맥Ken지의 이름이 없다. 캐나다 장로교가 재정 지원이 어려워 조선 선교사 파송을 못 하자, 그는 독립 선교사로 자원해 떠났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에 들지 못한 것이다.

잊혀진 맥Ken지 선교사의 고향을 다시 방문할 계

획에 우리는 마음이 부산했다. 척박한 조선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그분을 기리는 동판과 소래 마을을 연상시키고 그의 생애를 기리는 소나무 34그루를 심어, 우리 후손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 “누가 이 맥Ken지를 모르시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없게 길목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세워야겠다. 복음의 빛을 전한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캐나다의 한국교회가 보답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리라.

노바스코샤주는 전혀 캐나다 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7개의 언덕이 있는 에든버러 성에 온 기분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산천을 닮아 더 정답다. 하얀 둑단배들이 한가롭게 떠 있는 대서양 연안 소나무 언덕 위에 파인힐 신학교가 있다. 채플 벽에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동판을 보고서야 ‘여기가 캐나다로구나’ 했다.

그 동판은 윌리엄 존 맥Ken지 선교사가 머나먼 조선의 황해도 소래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된 3년 뒤에, 캐나다 선교회가 정식으로 파견한 트리오 선교사와 그 뒤를 따른 많은 선교사를 기리고 있다. 1895년, 로버트 머레이가 해외 선교사 파송에 미온적인 장로교 『위트니스』지에 맥Ken지 선교사의 사망 기사를 내면서 후임자를 조선에 보내자고 제

안하자, 파인힐 신학교 신학생인 롭이 이에 호응하는 긴 호소문을 교지에 올렸다. 그러자 캐나다 교회 여전도회가 3명의 선교사를 책임질 테니 선교사를 보내라고 촉구한다.

‘맥켄지의 후배들(Robert Grierson, William Rufus Foote, 고향 친구인 Duncan McRae)’인 이트리오 선교사 일행은 1898년 2월에 캐나다를 떠나 그해 9월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다. 그때 세브란스 병원의 에비슨 박사가 이들을 영접했다. 곧이어 맥켄지의 약혼녀로 알려진 루이스 맥컬리(한국명 이부인, 1864~1945)와 엘리자베스 맥컬리(루이스 맥컬리의 언니, 한국명 이애리사, 1862~1941) 두 자매가 조선을 향해 달려갔다. 엘리자베스는 맥켄지의 생애를 『한 알의 밀알』로 쓴 여선교사이다. 맥켄지의 격렬한 삶의 이야기를 조용한 서사시처럼 썼다는 평을 받았다.

파인힐 신학교를 졸업한 맥켄지는 델하우지 대학에서 의대 과정도 마쳤다. 그는 서상륜·서경조 형제가 세운 소래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병든 이웃들을 치료해 주면서도 자신의 병을 치료하진 못한 듯하다. 「어머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에비슨 박사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맥켄지의 차가운 주검 옆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그에게 세례를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어린 소년 서병호였다. 맥켄지의 머리맡에는 그의 분신 같은 성경책과 고향에서부터 들고온 세인트 조지 깃발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헬리팩스에서 남서쪽으로 페기스코브(Peggy's Cove) 등대를 향해 차를 달렸다. 거북이 등처럼 이리저리 갈라진 넓다란 만년바위 위에 꿈에나 보일 듯한 붉은 캡을 쓴 하얀 등대가 우뚝 서 있다. 그 옆엔 푸른 바다를 등지고 스코틀랜드의

짧은 타탄 바지에 검은 베레모를 쓴 백파이퍼의 구슬픈 음률이 흐른다. 그가 입은 타탄과 내가 입고 있는 조끼가 똑같은 맥켄지 가문의 문양이라서 더 반가워 사진도 함께 찍었다.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의 모습을 다시 보고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옛마을 린넨버그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해가 설핏해서 떠났는데, 페기스코브에 이르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졌다.

가로등도 없는 외길을 남편의 운전 솜씨만 믿으며 거북바위에 이르렀다. 깜깜한 밤바다를 사방으로 비추는 등대의 붉은 빛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누르는데, 찬바람에 손이 얼고 카메라도 얼어붙은 듯 작동이 안 되었다. 무조건 연속해서 셔터를 누르고 간신히 호텔로 돌아와 카메라를 열어보니 화면마다 붉은 점과 하얀 점들만 찍혀 있다. ‘잘 모시고’ 다니다가 토론토에 돌아와 컴퓨터로 열었는데 모두 깜깜이다. 그래도 피카사 웹의 ‘휴지통’에 버리긴 아까워서 ‘I am feeling lucky’를 눌렀더니, 정말 운 좋게도 칸딘스키의 기하학적인 그림이 되어 모두 되살아났다! 낫엔 못 보던 초월자의 실체를 깜깜한 밤을 지나 비로소 만난 기쁨! 우리의 삶은 어디서나 살아계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므로,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고 귀한 실존의 가치를 놓칠 뻔한 잘못을 일깨워 준 사건이어서 더욱 감사했다.

글·윤경남(영문 58)

*윤경남 동창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펜클럽 본부 회원, 한국번역가협회 회원,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이사입니다. 저서로 『새롭게 읽는 풍운아 윤치호의 우순소리』, 『부부의 십계명』, 『노년학을 배웁시다』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되어 선교하며 짧은 삶을 마감한 선교사 맥켄지의 발자취를 따라간 여행기를 《이화동창》에 보내왔습니다.

총동창회 소식

— 1 —

11월 '이화인의 밤' 행사, 호텔 개최 결정

2023년 8월 정기 임원회가 8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 임원 회의는 찬송가 305장 찬양과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전 회의록 낭독과 회계보고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 각 부 및 대학(원) 보고를 마친 후 하반기 주요 행사인 '대바자회'와 '이화인의 밤'에 대한 안건 토의에 들어갔다. 먼저 바자회 안건에 대해서 안경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은 "판매 물품에 모교(총동창회) 마크를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판매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 제안했고, 이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로고가 찍힌 종이컵이나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니 미리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한 변은경(간호 83) 간호대회장은 "기존 바자회에서 먹거리 판매가 일찍 종료

되어 아쉬웠다"며 "바자회가 잔치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동창들이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두 번째 안건으로 11월 27일(월)에 열릴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대강당 행사가 좋은 게스트와 훌륭한 무대 연출로 성황리에 마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아 올해도 대강당에서 치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강당에서 하면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여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알리고 올해는 선후배가 원탁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00석 규모에 티켓 25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 호텔에서 치르는 안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임원들은 토론 후 대강당과 호텔 중 거수 투표로 장소를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투표를 한 결과 호텔 찬성표가 18표로 과반수를 넘어 올해 '이화인의 밤' 행사는 호텔에서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8월 말까지 추천받은 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과 10월 14일(토)에 개최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7월과 8월에 시카고와 영국 지회에서 총동창회를 방문해 임원진과 만남을 가졌고, 오는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선물로 실내 슬리퍼를 준비했음을 알렸다.

또한 현재 동창회관 1층에 황화방 공사가 진행 중이고 9월 초에 개업 예정이라는 것과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에 대한 총동창회 규정 초

안을 바자회가 끝난 뒤 9월 15일(금)에 임원들에게 공지한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바자회 때 총동창회 마크가 찍힌 앞치마를 부스당 2장씩 배부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미리 주문하면 2만 원에 구매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 2 —

9월 정기 임원회에서 대바자회 등 하반기 일정 논의

9월 정기 임원회가 9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 43명 중 참석 31명(위임 9명, 불참 3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이날은 ‘대바자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인의 밤’ 행사와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9월 14일(목) 열릴 예정인 ‘대바자회’에 대해서 김경령 총무는 “당일 오전 7시 30분 이전 행사장 근처에 물건을 내려놓아야 혼잡을 덜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봉투, 스티커, 앞치마 등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 등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전달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판매 확정된 물건은 사진이 포함된 브로셔를 만들거나 한 장짜리 인쇄물을 만들어 주면 다른 곳에서도 빠르게 품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적극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10월 14일(토) 열리는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8월 22일(화)에 행사에 관한 메일을 발송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23일(수)에 마감되었다”고 보고하며, 당일 모나미에서 크레용을, 크라운해태

제과에서 간식을 협찬하며, 뾰로로 물건도 협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심사위원은 강승주(조소 87) 조형예대 회장을 포함한 3인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또한 우천을 고려하여 2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대강당을 대관했으니 우천시 대강당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인의 밤’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게스트로 정미조 동창을 섭외했고, 학창제에서 인기상을 받은 조형예대팀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티켓은 김곡미(디대원 93) 디자인대학원 회장이 디자인해 10월 임원회의 때 배부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는 현재 7명인데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단과대 회장을 선정위원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알렸고, 이에 전선헤(체육 83) 체대 회장, 임선영(의학 82) 의대 회장, 정소희(작곡 89) 음대 회장, 우미형(의직 77) 생활환경대 회장이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으로 결정되었다. 이들을 포함, 김영주 고문 등 총 9명(총동창회장, 문화부장, 모교 대협처장, 모교 홍보실장 포함)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기타 보고 사항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국내 및 해외 지회 재정비를 위해 총동창회 정관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 중이며, 이올 연합회 2주년 행사가

9월 정기 임원회 모습



10월 16일(월) 이삼봉홀에서 열린다고 공지했다. 황화방 리모델링이 끝나 오픈을 준비 중인 총동창회는 재개업 떡을 준비해 참석한 임원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황화방 재개업 을 주변에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안영호(중문 85) 인문대 회장은 8월 30

일(수)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이 있었음을 알리며, 1,400여 명의 동창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한 의미 있는 공간인 만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부 소식 —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중동 T국에서 23년간의 전문인 사역(비즈니스, 교사, 현지교회협력사역) 후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안식년과 연구 휴직으로 미국에 머물게 되었다. 미국에서 안식년과 학업을 하며 지난 5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이끄신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50대 중반에 학생비자로 시작한 미국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2학년 큰아들의 대학 진학 문제가 막막했다. 미국 입시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했고 영주권도 없는 현실에서 유학생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학생비자로 취업할 자격이 없어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던 터라 큰아이의 미국 대학 등록금은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큰아들은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 입학을 뒤로하고 학비가 그나마 저렴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게 되었다. 부모 된 마음은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2년 사이에 우리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큰아이가 3학년에 편입해야 하는 시간이 왔지만 영주권 문제는 해결이 요원했다. 아이의 대학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오래 전부터 주신 그분의 음성은 “원하는 대학에 가라고 해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점점 편입 합격 통지가 온 곳에 입학 의사를 밝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었다. 그때 남편이 T국에 일이 있어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로 교회 구역 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듣던 이민법 변호사가 T국에서 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설명을 들은 변호사는 뜻밖에도 취업비자 1순위 즉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자에게 주는 비자 신청 자격이 된다고 했다.

우리는 믿기지 않았지만 수임료도 받지 않고 돋겠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15년간 해온 남편의 비즈니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연륜이 깊지 않은 변호사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놀라 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3일 만에 주어졌다. 영주권을 신청함과 동시에 큰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후 믿기지 않지만 4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고 거주자 학비(In State)로 공부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 1년이 지나야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적적으로 4개월 만에 받은 영주권은 당장 학비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금액의 전액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 속에 입학을 포기하겠다는 큰아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을 믿고 대학에 가라”고 했다. 등록금을 갚기 위해 큰아들은 대학에 다니며 주중에 4일은 식당 매니저로 일을 하고 닥치는 대로 장학금을 신청하며 올 4월에 모든 학비를 갚을 수 있었다.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엔 일할 수도 없고 영주권이 없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팬데믹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넓혀져 합법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그 기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다.

하나님은 23년간 사역하면서 안정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듯, 우리 가정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막막한 나의 삶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명령이 가장 힘겨웠다. 하지만 두렵고 막막했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채워져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증거하게 해주셨다.

『신뢰』라는 책을 쓴 브레넌 매닝은 ‘신뢰는 제2의 회심’이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진정 너의 하나님인가?”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고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반응이다. 믿음은 믿고자 해서 생기지 않는다. 내 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은 변함없이 막막하지만 이전처럼 두렵고 불안하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내 삶의 제2의 회심을 경험하게 하였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글·김리디아(사회과교육 89)

* 김리디아 동창은 중동 T국에서 2015년부터 23년간 사역하였으며, 「한인 중년 시니어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 커리큘럼 연구」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2022년 선교목회학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모교 소식

— 1 —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

새학기 개강을 앞둔 8월 30일(수) 교내 학관 앞 광장에서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이 열렸다. 이날 봉헌식에는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장상·김혜숙 전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교내 인사와 최창걸 고려아연(주) 명예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정무경 ESG위원장,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정소영 흥한재단 이사장 등 기부자,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교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미래교육공간으로 탄생한 학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은미 총장은 “이번 학관 리모델링과 신축 모금에 참여한 1,400여 명의 동창과 교내외 기부자들, 특히 2030세대의 젊은 동창들의 참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학관에서 많은 학문적 교류와 진리의 탐구가 펼쳐지기를 고대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장상 전 총장은 “이화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따스한 배려와 동창들의

참여가 모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위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축사를 전했다.

안선희 교목실장의 봉헌사와 기도에 이어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이 학관 완공을 위해 노력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문진호 대표이사와 한일건설 주식회사 손영호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봉헌식 2부 순서로, 테이프 커팅 및 기부자 기념 판제막식, 시설 관람 순서도 마련됐다.

학관은 10개의 목조 건물로 시작해 5차례에 걸친 공사 끝에 1964년 완공됐다. 강의실이 많아 영어의 ‘클래스룸’에서 따온 C관으로 불렸을 만큼 많은 수업이 이뤄졌고, 인문대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교양 및 대형 강의 터전으로서 모교생이라면 한 번쯤 수업을 들어본 적 있는 추억의 건물이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2014년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됐고, 2021년 리모델링과 일부 신축 공사에 착수한 지 2년 반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연면적 약 1만 7,640m²(5,335평)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 학관은 농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



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유연학습공간, 개방형 컴퓨터실습실, 400석 계단형 강의실, 스마트·첨단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인문학적 상상력과 첨단 기술이 만나는 21세기형 학습공간으로 거듭났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습과 휴식을 제공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사용될 유연학습공간은 ‘학문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의 비전 아래 모교 제2세기 도약을 이끌었던 정의숙 전 총장을 기리기 위해 ‘정의숙홀’로 이름 붙여졌다.

연극 공연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고려아연 강의실’, 쾌적한 수업환경으로 재탄생한 ‘홍한재단 강의실’, 김정옥 동창의 후원으로 조성된 열람실인 ‘EUROPA-LESERAUM(오이로파 레제라움)’, 인문대 동창들과 8개 학과 동창회의 후원으로 조성된 컴퓨터실습실, 이화국제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가변형 능동학습강의실 등 기부자 명명 공간도 마련됐다.

모교 상징인 배꽃의 휘날림을 상징화한 디자인으로 꾸며진 라운지, 이화·포스코관 방향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시설들로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우주’를 모티프로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상징화한 기도실, 학관 건축에 참여한 기부자를 기리기 위한 기부자 기념판 등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담은 공간도 마련됐다. 지난 2021년 학관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로운 학관을 위한 기금 모금에 1,400여 명의 동창 및 기부자가 참여했다. 특히, 기부자 중 35세 이하 동창이 75%에 달할 만큼 젊은 동창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모교는 후원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자 기념판을 마련, 300만 원 이상 후원자의 이름을 일일이 수록했다.

— 2 —

건축가 안도 타다오 특별 강연

모교는 한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 뮤지엄 산과 함께 7월 15일(토) 대강당에서 건축가 안도 타다오 씨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뮤지엄 산의 두 번째 명상관 ‘빛의 공간’ 오픈을 기념해 특별히 진행된 강연으로, 모교 건축학전공 재학생 200여 명이 행사 진행을 지원했으며, 김현대 교수의 강연 소개로 문을 열었다.

‘가능성은 스스로 만든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안도 타다오 씨는 “목표를 가지고, 자유와 용기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재미 있는 일이 없을까?’를 찾다 보면 많은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며 본인은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도 아니고, 최근 10



모교에서 강연 중인 안도 타다오(사진 제공·뮤지엄 산)

년 간 여러 장기를 절제할 만큼 아프기도 했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즐겁게 살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중들에게 “핸디 캡을 극복하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제인 구달

— 3 —

모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이학 박사학위 수여

모교는 7월 7일(금) 오후 5시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제인 구달 연구소 설립자이자 UN 평화대사인 제인 구달 박사에게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난 제인 구달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아프리카 이야기에 크게 영감을 받았다. 1956년 침팬지 연구자를 찾고 있었던 고생물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탄자니아 곰베 스트림 국립공원에서 60년 이상 침팬지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는 영장류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연구로 기록됐다. 또한, 제인 구달 박사는 1977년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해 침팬지 및 다른 야생 동물들이 처한 실태를 알리고 서식지 보호와 처우 개선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에는 모교 최재천 초빙석좌교수가 설립한 ‘생명다양성재단’이 ‘제인 구달 연구소’의 한국 지부를 겸해 2013년에 출범했다.

고민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는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총장, 김선옥 전 총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 생명다양

성재단 관계자, 그리고 모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화 한국음악 실내 악단의 주연, 안선희 교목실장의 기도, 한유경 대학 원장의 추천사, 김은미 총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이어 제인 구달 박사의 수락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지구에, 또 사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개인의 환경 발자국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교는 1952년부터 여성 권한 증진을 통한 인권 향상, 여성의 역량강화 등 모교의 교육 이념과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인사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주요 인사로는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2002년), 메리 매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2005년),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20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반기문 UN 사무총장(2015년), 케르스티 칼루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2018년), 일함 카드리 솔베이 CEO(2022) 등이 있다.

— 4 —

모교 연구진, 선도연구센터·기초 연구실 선정

정부가 지원하는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에서 선도연구센터에 2개 연구소가, 기초연구실에 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육성하는 선도연구센터 에 생명과학·환경공학 연구팀 선정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Multitasking Macrophage Research Center, MMRC)(연구책임자: 생명과학과[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연구 주제의 기초과학적 중요성 및 센터장을 포함한 공동연구진의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받아 ‘이학분야 선도연구 센터(Science Research Center, SRC)’에 선정됐다. MMRC는 향후 7년간(4+3) 105억 3,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생명과학과 이수영 교수와 권미정·김태수·오구택·오양균·정우진 교수, 그리고 고려대 우재성 교수, 서울대 김혜영 교수, 연세대 이준용 교수, 포항공대 김태경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이수영 센터장은 “멀티태스킹 대식세포를 중심으로 인간을 비롯한 다기관 생명체의 조직항상성과 염증 원인을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생명 현상의 심층적 이해는 물론 바이오헬스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이익 실현을 위한 환경블라인드스팟 전략 선도연구센터(연구책임자 : 환경공학전공 손아정 교수)는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onvergence Research Center, CRC)’에 선정되어 최대 7년(2+2+3년)간 80여억 원을 지원받는다.

환경공학전공 손아정 교수와 조경숙·윤여민·이지이·박찬혁 교수,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김영욱 교수, 경제학과 박민정 교수, 소비자학과 이혜미 교수, 행정학과 김유미 교수, 전남대 조은혜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플라스틱 유래 미세

유해물질 및 사회 곳곳에 잠재된 환경블라인드스팟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법과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학과 인문사회 과학간 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아정 교수는 “본 과제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개발과 사회과학연구의 융합적 접근법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2개 연구센터가 신규 선정됨에 따라 모교는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의학과 이지희 교수), 혼성계면화학구조 연구센터(연구책임자: 화학·나노과학전공 박소정 교수),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약학과 이윤실 교수)와 함께 총 5개 연구센터가 각 분야 대형연구를 선도하게 됐다.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및 신기술 개발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에 4개 팀 선정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RL, Basic Research Laboratory)에는 통계학과, 화학·나노과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연구팀이 선정됐다. 선정팀은 향후 33개월(2023년 6월 ~2026년 2월)간 총 13억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융합 및 심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통계학과 연구팀은 융합형 기초연구실로 선정되어 ‘개인별 맞춤 분석을 위한 다학제 통계방법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모교 통계학과 유재근 교수(연구책임)와 안재윤 교수, 주원영 교수, 그리고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겨리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의학·유전학·금융·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복잡한 개인별 빅데이터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집단 연구를 수행한다.

화학·나노과학전공 연구팀도 화학 분야 융합형 연구실로 선정되어 ‘활성산소 방어기전 직접 표적을 통한 정밀 광역학 치료법’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모교 화학·나노과학전공 윤주영 교수(연구책임자)와 장원준 교수, 약학과 장선복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준석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활성산소 방어기전(Reactive Oxygen Defense Mechanism)을 표적하는 유기 감응제를 분자인식기법 바탕으로 설계해 차세대 항암치료 전략인 비침습적 정밀광역학치료법(Precision Photodynamic Therapy, pPDT)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품생명공학전공 연구팀은 ‘맞춤형 바이오식품 구현을 위한 “미각-마이크로바이옴-생리활성” 상호작용 기초융합연구’를 주제로 기반생명 분야 융합형 기초연구실에 선정됐다. 모교 식품생명공학전공 이혜성 교수(연구책임자)와 박진병 교수, 김병식 교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 강남주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쓴맛 성분과 미각수용체 상호작용 기반 바이오식품 감각특성 및 인체민감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사이버보안전공 연구팀은 ‘커넥티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SPV(Security/Privacy/Visual) 방화벽 연구’를 주제로 심화형 연구실에 선정됐다. 모교 사이버보안전공 양대현 교수(연구책임자)와 컴퓨터공학과 민동보 교수, 오세은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주행 중 실시간 대응 가능한 자동차용 방화벽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 보호 기능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

‘THE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젠더 평등 부문 4년 연속 국내 대학 1위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평가(THE Impact Rankings 2023)’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모교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QS세계대학랭킹, ARWU와 함께 세계 3대 대학 랭킹으로 꼽히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대학의 지속 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9년 ‘대학 영향력 평가’를 도입했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평가’에서 모교는 ‘젠더평등(Gender Equality)’ 부문 4년 연속(2020~2023)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하며, ‘여성 교육’을 통해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온 모교의 비전과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젠더평등’ 부문 순위는 대학의 젠더평등 연구실적, 여성 고위직 비율, 차별철폐정책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젠더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 모교는 본 부문 평가 대학 1,081개 중 국내대학 1위, 세계대학 공동 51위를 기록했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이화의 소명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이화가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계적 리더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여성 참여가 저조한 STEM 등 첨단 분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교육·사회적 기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글로벌 여성리더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원) 소식

인문과학대학

회장 __ 안영호(중문 85)

'뮤지엄 산'으로 알찬 나들이

6월 9일(금) 인문과학대학 동창회는 한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뮤지엄 산(관장 안영주)'에 다녀왔다. 25명의 인문대 동창들은 빛과 공간의 마술사 제임스 터렐의 작품 감상과 명상관 체험, 안도 타다오의 개인전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원주의 '뮤지엄 산'은 '소통을 위한 단절(Disconnect to Connect)'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자연과 건축과 예술품이 어우러져 삶의 여유와 휴식을 얻



'뮤지엄 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인문과학대학 동창회

기에 더없이 훌륭한 곳이었다. 특별히 이른 입장 을 허락받은 동창들은 여유 있게 걸으며 작품 감상과 함께 명상관 등을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안도 타다오 개인전을 기획한 노은실 큐레이터가 인문대 동창들을 위해 특별 설명을 해준 덕분에 감동이 배가 되었다. 모든 곳이 포토존일 정도로 멋진 장소에 마음을 뺏긴 동창들은 연신 포즈를 취하며 여학생들처럼 까르르 웃음꽃을 터뜨렸다.

편안한 버스와 맛있는 식사, 적절한 간식까지, 알뜰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안영호 회장과 각 과 동창회장들의 후원과 응원 덕분에 력서리하고도 알찬 기행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라고 하는 '뮤지엄 산'. 물 위에 반사되는 하늘과 구름과 산과 나무들을 뒤로하고 도시로 돌아온 인문인들의 가슴은 다시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추억과 사랑으로 충만했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__ 황북기(화학 83)

2023 정기총회 개최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정기총회가 6월 16일(금) 오후 3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962년 졸업 동창부터 2023년 신입 동창까지 약 60명의 선후배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경숙(화학 88) 총무의 사회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총회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를 더욱 사랑> 제창으로 1부를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오혜경(수학 87) 선교부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황북기 회장의 개회사를 통해 단합이 뛰어난 자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연대 동창회를 소개함으로써 더욱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자연대 동창회 고문인 남상택(물리 74) 전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고, 양인상 자연과학대학 학장은 자연대의 훌륭한 연구 성과 및 진행 사업 등을 전해 주어 자연대의 발전 현황에 대한 동창생들의 이해와 긍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2023년 ‘빛나는 이화인’ 김용연(생명 87) 동창, ‘올해의 이화인’ 송종선(수학 93)·김혜주(통계 93)·박형재(물리 93)·윤영지(화학·나노 93) 동창, ‘영원한 이화인’ 신승애(물리 63)·이종옥(화학·나노 73)·김성옥(생명 72) 동창에 대한 축하와 이노정(수학 23) 신입 동창의 인사가 이어졌다. 선한나(통계 92) 동창이 소속된 오포유 오카리나 콰르텟의 특별 연주는 총회 분위기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2부에서는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기금현황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 동창회에서 주최한 ‘김장 나눔과 함께한 야유회’, ‘특강, 선후배와의 만남’ 등의 사업보고가 이어졌다. 2023년도 동창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다음 순서로 각 과 동창회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각 과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나노과, 생명과학과 등 5개과로 이루어진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선후배 간의 결속을 다지고 추후 진행될 여러 행사에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하고 격려하며 같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창들은 다 같이 교가를 제창하며 공식 행사를 마쳤다.

의과대학

회장 __ 임선영(의학 82)

친선 골프대회 개최

이화의대 동창회와 들꽃청소년세상은 5월 10일(수) 서울시 관악구 들꽃청소년세상에서 청소년 자립지원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자립 청소년의 의료 자문, 의료 봉사 활동, 자립 지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6월 11일(일) 경기도 여주 금강CC에서 2023년

이포사 출사 모임(위)과 골프대회(아래)에 참가한 의과대학 동창들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총 24명의 동창들이 참가하였다. 임선영 회장과 동창회 임원진들의 환영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들과 반가운 점심 식사를 나눈 동창들은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맞으며 골프대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조원주(의학 99) 동창이 홀인원을 하는 행운을 맞았으며, 전반 몇 홀을 제외하고는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즐거운 골프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골프대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와 함께 동창들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푸짐한 참가상 및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신페리오 방식 우승은 이지은(의학 85) 동창에게 돌아갔다.

7월 16일(일)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에서 이포사 출사 모임이 있었다. 이포사를 이끌고 있는 양훈진(의학 95) 디렉터의 깃발 아래 꽈영신(의학 63) 동창부터 윤수진(의학 90) 동창까지 15명의 동창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연꽃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하였다. 선후배들이 준비해 온 떡과 샌드위치, 과일, 커피를 나누며 즐겁고 풍성한 출사 여행을 마무리했다.

간호대학

회장 __ 변은경(간호 83)

동창회 기 간사 및 임원 모임

8월 18일(금), 간호대학 동창회 기 간사 및 임원 모임이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동창회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변은경 회장, 강윤희(간호 94) 간호대학 장 및 동창회 임원, 기 간사를 포함해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1966년도 입학 동창부터 2004년도 입학 동창까지 39년의 시간이 함께하는 자리



기 간사 및 임원 모임을 진행한 간호대학 동창회

로, 이화간호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토의가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회우의 자리에서 동창회에서 준비한 식사에 모두 참석하여 끈끈한 동창의 정을 쌓았다.

약학대학

회장 __ 박병희(약학 84)

‘갤러리 박영’에서 6월 정기 임원회

6월 22일(목) 유연옥(약학 73) 동창의 초대로 ‘갤러리 박영’에서 40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 임원회가 진행되었다. ‘갤러리 박영’에 도착하자 그곳 큐레이터가 갤러리에서 기획·전시 중인 작품과 작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 오랜만에 예술품을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갤러리 박영’은 박영사가 2008년 경기 파주 출판단지에 세운 복합문화공간이다. 박영사의 창업자 고(故) 안원옥 회장의 손녀이자 유연옥 동창의 장녀인 안수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도슨트 투어 후 각종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넓은 실내 정원에서 유연옥 동창이 준비한 향긋한 오미자 차를 마시며 6월 정기 임원회를 가졌다.

황경수(제약 88)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화연(약학 82) 선교부장의 기도, 박병



약대 동창회에서 발간한 《동창회 소식》

대 교수 모두가 EWC 약대 건축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식사 후 근처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갤러리 박영’ 주관 통일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민족의 아픔과 통일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약대 동창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소식지인 《동창회 소식》(제41호)을 발간하였다. 모교 소식과 총동창회 소식, 약대 소식, 각 기별 동창 소식과 우리들의 이야기 등 다채롭게 꾸며진 약대 동창회 소식지는 2023년 8월 25일(금) 발간되어 4,000여 명의 동창 주소지로 우송되었다.

희 회장의 인사 및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EWC 약대건축 기금 모금현황 보고에 이어 동창회 학술부장인 이정연 (약학 90) 임상약학 교수가 곽혜선 학장을 대신하여 약

령회와 각 과의 활동보고와 동호회 소개로 이어졌다. 그리고 아령합창단의 멋진 공연도 있었다.

뷔페로 진행된 점심 식사 후에는 팝페라 가수 이성신 씨의 공연을 감상하였다. 방미숙 총무는 재치 넘치는 진행 솜씨로 참석한 동창들에게 골고루 시상하였고, 폐회사 후에 기념 촬영으로 행사 를 마무리하였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은 아령회가 준비 한 감동적이고 따뜻한 프로그램 덕분에 이화 동창 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후 교정 이곳저곳에서 뒤풀이를 하였다.

많은 선후배 동창이 참여해 주어 풍성하고 행복 한 홈커밍 행사가 되었다.



아령회 홈커밍 행사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생활환경대학

회장__우미형(의직 77)

대학원

회장__이화정(대학원 92)

아령회 홈커밍 행사

6월 15일(목) 아령당에서 2023년, 2022년, 2021년에 졸업 30주년·40주년·50주년을 맞는 선후배 동창들과 함께 생활환경대 동창회 아령회 홈커밍 (동창 초청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및 합창단을 포함 모두 63명이 참석하였다.

우미형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방미숙 (의직 91) 총무의 기도와 인사 말씀, 임원 소개, 아

‘대학원 동창인의 밤’ 개최

6월 8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제1회 대학원 동창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대학원 동창들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송은 주(대학원 99) 학술·연구부장의 사회로 학술발표



기념사진 촬영

'대학원 동창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 동창들

및 특강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최정아(대학원 98) 총무부장의 사회로 만찬과 함께 '대학원 동창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 순서는 김유리(대학원 99) 선교부장이 인도하는 개회 예배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화정 회장의 환영사와 한유경(대학원 83) 대학원장의 축사를 통해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대학원 동창들에게 대학원 동창회의 활동과 이화의 근황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3년 1학기 미래인재 장학생인 고예지(대학원 21) 박사과정생의 '페트라 콜린스의 이미지와 여성주의' 주제의 학술 발표와 헤이조이스 대표이자 마켓컬리 부사장인 이나리(철학 92) 동창의 '나다움을 지키며 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각 단과대학 및 과별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서로 소개하며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피아니스트 이화정(피아노 90) 동창의 특별 공연으로 감미롭게 마무리하였다.

디자인대학원

회장__김곡미(디대원 93)

이삼봉홀에서 창립 40주년 행사

디자인대학원 창립 40주년 행사를 6월 29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하였다. 4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선·후배의 만남, 재학생과 동창과의 만남, 은퇴 교수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만남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전에 6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이화아트센터 2층 전시장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 리더 40인의 작가의 연합 작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40주년 행사에서는 특별히 조기련(디대원 85) 동창 외 26명의 각 전공별 자랑스러운 동문상, 우수 동문상 수상자를 선정 후 디자인대학원(원장 최유미·디대원 89)과 동창회가 공동으로 상을 시상하였다.

1부 특강과 시상식, 2부 특별공연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패션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공간·조명디자인, UX디자인, 디자인매니지먼트, 서비스디자인, 크래프트디자인, 컬러디자인테크놀로지 8개의 전공이 화합하고 뜻을 모아 이화 디자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40인의 연합 작품 중 일부는 아트페어 전시로 연결하여 판매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립 40주년 행사를 개최한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회장_홍성미(78)

임원회의에서 동창회 행사 논의

8월 16일(수) 임원회의를 열어 총동창회 바자회와 기간사 아우팅, 추계강좌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 다가오는 2025년 ‘영문과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영학회의 역할에 관해 열띤 논의를 했다.

8월 19일(토) 서울 명동에서 1994년 졸업 동창총 10인이 모임을 갖고 내년으로 다가온 졸업 30주년 기념 활동에 대해 상의했다. 졸업 30주년을 계기로 향후 연간 3~4회 정기 모임을 갖고 해외 거주 동창들 포함, 보다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전개하

임원회의에서 영학회 행사에 대해 논의한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기로 뜻을 모았다.

8월 30일(수)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에 참석하여, 학관 리모델링 기금을 후원한 동창들의 정성에 감사하며 영어영문학 전공 연구실, 가변형 능동학습강의실, 기도실 등을 둘러보았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송기정(80)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

6월 21일(수)과 8월 16일(수) 압구정 한일관에서 불어불문학과 선후배와의 만남을 가졌다. 불어불문학과 아미회 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불문과 선후배가 행복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송기정 회장이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신입 간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6월 21일(수)에는 17명의 신입 회원이 참가해, 보다 더 활기찬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워진 동창회 활성화 방안으로 소모임 개최, 10월 18일(수)로 예정된 강원도 횡성 단풍놀이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선후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이지연(75)

동창회 기 간사 모임

6월 22일(목) 대치동 한식당에서 기 간사 모임을 갖고 향후에 있을 여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 간사들이 참석해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바자회를 비롯한 2023년 이화인의 밤, 송년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기 간사 모임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을 추대한 시학과 동창회

추대하고 새로운 동창회 임원진 구성을 일임하였다. 최유리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사학과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각오와 비전을 밝히고 동창들의 협조와 관심 및 참여를 당부하였다. 여러 세대의 동창들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될 동창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동창회 발전의 염원을 담아 교가를 제창하면서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맛있는 식사도 하고 행운권을 추첨하며 동창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학과

회장 __ 최유리(84)

6년 만에 개최한 정기총회

6월 22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개최 이후 6년 만에 열린 이날 총회에 100여 명이 넘는 동창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총회는 회장 인사,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동창 축하, 박사학위 취득 동창 문진 중정, ‘올해의 이화인’ 및 ‘영원한 이화인’ 소개, 신입 동창 소개, 서기 보고 및 회계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최유리 동창을

사회학과

회장 __ 조성남(77)

스승을 그리워하며 이이효재길 거닐어

봄의 끝 무렵, 사회학과 동창들은 진해구 중원동로 52 제황산공원 내에 있는 이이효재길을 다녀왔다. 이이효재길은 이이효재 선생님의 살아 생전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지역 내 제자, 학계, 정치, 언론, 지역주민 등의 요청에 의해 조성된 길이다. 진해 광장의 기념 공간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생전 추구하셨던 가치관을 생명·평등·평화·이음 4가지 테마로 그 의미를 부여하여 둘레길이 조성되었다.

2020년 타계한 이이효재 선생님은 여성 운동 1세대로서 여성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모교 교수를 퇴임한 후 진해에 내려



진해 이이효재길을 방문한 사회학과 동창들

가 '진해기적의도서관' 유치를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며 이곳에서 산책을 즐겼다고 한다.

심리학과

회장__장은진(90)

스승의 날 행사 개최

심리학과 동창회는 5월 12일(금) 이대 후문 중식당 티원에서 은사와 현역 교수들을 초청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76학번부터 21학번까지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회장 인사, 은사들의 동향, 참석자 소개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과 친교 시간을 가지고 성황을 이루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본 행사는 은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심리학과 동창회의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심리학과 동창들



생명과학과

회장__박미향(89)

국립생태원 1박 2일 기관탐방 진행

'우리 멘토링은 종신제다'라는 모토로 모교 생명과학과 출신 선후배들이 모여 시작한 멘토링은 17년 역사의 이화바이오멘토링 팀에 이어, 작년부터 동창 후배를 위한 멘토링으로 발전했다(2007년 시작된 이화바이오멘토링 팀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취업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산·학·연 전반에 걸친 생명과학과 전문가, 생명과학과 전공 전문직 17명의 멘토로 구성하여 총 33명의 멘토(멘티 출신 5명 포함), 302명의 멘티를 배출한 역사가 깊은 멘토링 팀이다).

올해는 2016~17년도에 멘토·멘티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국립생태원 1박 2일 기관탐방을 6년 만에 재개하여 8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재학생 멘티 20명, 8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WISET 이화바이오멘토링 팀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울산 등 전국 각지 멘티 9명이 참여하였다.

국립생태원 기관 방문 프로그램은 첫째 날 용산역에서 서천 장항역까지 3시간 가량의 기차 멘토링, 동물관리연구실 CITES동물관리부 고은하(생명 09) 선임연구원의 소개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기관탐방(에코리움 전시관, 야외 전구역), CITES보호시설 방문, 국립생태원 업무 소개, 멘토-멘티간 멘토링의 밤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 송림 맥문동 일대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1박 2일의 멘토링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참여한 멘티들은 "국내 최대의 생태연구 인력을 보유한 생태전문 연구기관으로 세계 5대 기후를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을 방문한 생명과학과 멘토·멘티들

재현한 전시와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광활한 야외전시구역이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선배님과 함께 CITES보호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밀수 재현 전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시설 내부를 관람하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명을 빼앗기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환경공학과

회장 __ 나유미(97)

창립 30주년 기념 동창회 행사

환경공학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동창회 행사를 개최하고, 졸업생 일동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환경공학과에 전달하였다.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환경공학과 동창회



6월 2일(금) 모교 ECC극장에서 2023 스마트 물환경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재학생 및 동창생들에게 최신 물환경 동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스마트 물환경에 대한 심포지엄과 박석순 교수의 특별강연 후 만찬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종교음악과

회장 __ 오지영(88)

이화뮤직페스티벌에 참여

5월 26일(금) 열린 이화 졸업 30주년 기념음악회에 종교음악과에서는 오르간 최수황(92), 피아노 안윤선(93) 두 동창이 C. Demarest의 <오르간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을 듀오로 연주하였다.

6월 8일(목) 각 과 음악회에서는 오르간 김선정(90) 동창이 F. Mendelssohn의 <오르간 소나타 3번 3악장>을 연주하였다. 더불어 교내 채플과 교내외 행사 등에서 활발히 연주하고 있는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 이화그레이스콰이어가 J. McGranahan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강샤론 편곡)를 연주하고, 공연 후에는 음악회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음악대학 로비에서 <기대>(천강수 곡, 최재영 편곡)를 들려주었다.

이화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한 종교음악과 동창들



학과가 통폐합되어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종교음악과는 교회음악 전반을 연구했던 성 악·피아노·오르간 세 개 전공의 학과였기에 반주와 노래, 지휘까지 오롯이 모두 종교음악과 동창들만으로 구성한 무대가 의미 있었다. 코로나19의 공포를 이겨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기획부터 공연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세대를 넘나든 많은 동창들의 아름다운 참여에 내년에는 더욱 더 풍성한 뮤직페스티벌이 될 거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동양화과

회장__이승은(89)

제40회 채연전 '그림 속의 시'

동양화과 동문전인 채연전이 올해 제40회를 맞아 6월 28일(수)부터 7월 3일(월)까지 종로구 인사동길 소재 인사아트센터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채연전 역사상 128명이라는 최다 동창들이 함께 했으며, 동창회에서는 제40회 채연전을 기념하여 특별 기획영상 <SUNNY>를 제작했다. 학창시절 추억의 사진으로 구성한 이번 영상은 1966년 졸업한 선배들부터 2017년 졸업한 젊은 후배에 이르기까지 44명의 동창들 모습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올해 채연상

은 정현진(96) 동창에게 돌아갔다.

서양화과

회장__송은주(86)

실기실 오픈스튜디오와 이화아트센터 전시 관람
서양화과 동창회에서는 6월 7일(수)에서 11일(일) 까지 서양화과 대학원 실기실의 오픈스튜디오를 방문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이화아트센터 전시회를 관람했다. 수십 년 전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후배들이 쌓은 물감의 흔적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실기실의 작품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양하게 변모되었는데, 2023년을 살아가는 작가로서 자신만의 언어를 확장시키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서양화과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그려졌다. 각자의 개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작품 설명서를 비치하기도 하고, 큐알코드나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적극적 홍보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었다.

이화아트센터 전시에서는 규모가 큰 대형 작품들이 많아서 눈길을 끌었다. 이화아트센터는 천장이 높아서 큰 규모의 작품이 설치가 가능한 곳인데, 서양화과 졸업생들이 대형 작품들을 모교의 공간에서 전시하여 더욱 빛이 났다.

제40회 채연전에 참석한 동양화과 동창들



이화아트센터 전시 오프닝을 축하하는 동창들



이번 전시는 역량이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후배들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10월에는 서양화과 졸업생들의 동문전인 이서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신입 회원 영입과 관련해 후배들의 작품세계를 눈여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프닝에는 서양화과 교수님들과 졸업생,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서로 소개하며 인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조소과

회장 __ 오주연(90)

ESAarts Award 수상전 열려

2023년 ESAarts(Ewha Sculpture Association) Award의 동창작가그룹 수상 중 1990년도 졸업생 수상팀(김진희(88)·나영미(90)·박형미(90)·박효정(90)·오영임(90)·오주연(90)·원영은(90)·이미자(90)·이영송(90)·이윤정(91) 동창)의 '소소전'이 6월 15일(목)부터 25일(일)까지 갤러리 아트링크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1985년도 졸업생 수상팀(박성희(85)·박신정(85)·윤선(85)·이정미(85)·최승애(85)·백미숙(86)·홍현애(86) 동창)의 '1981 레트로 정이전'이 8월 16일(수)부터 25일(금)까지 목인박물관 목석원에서 개최되었다. ESAarts Award로 개최한 두 동기전은 동창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전시였다.

ESAArts Award는 2021년부터 조소과 동창회에서 선정하는 Award로 전시 지원 및 다양한 지원을 재학생뿐 아니라 동창 작가들에게도 하고 있다. 매년 선정된 팀은 전시를 진행하거나 아카이브 제작 등으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동창작가



〈소소전〉(왼쪽)과 〈1981 레트로 정이전〉 포스터

그룹 2팀 및 대학 졸업 예정자 및 대학원 재학생 팀이 선정되었으며 추후 전시로 공개될 예정이다.

섬유예술과

회장 __ 이상영(94)

예미회 회장단 회의

6월 19일(월) 압구정 오미가에서 예미회 제2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효범(61)·김혜순(66)·오복환(66)·이상복(67)·윤귀영(71)·장영란(77)·박정례(79)·전영선(88)·박희전(90)·이상영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활동 결과보고 및 하반기 활동 계획, 2024년 예미전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7회 동창의 날 및 합창제 결과 보고도 있었다. 합창제 최고상과 인기상을 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예미회 임원진



상한 녹미합창단은 예미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봉지희(85)·이상미(88)·전영선(88) 동창이 단원으로 참여해 수상의 의미를 더하였다.

7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이도 청담에서 2023년 ‘총동창회 바자회’ 준비를 위한 섬유예술과 임원진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각부 활동 보고 및 중간회계 보고가 있었고, 바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8월 9일(수)까지 바자회에 참여할 기업과 상품을 확정하였다.

신으로 학교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로 구성된 전시 그룹이며, 이번 전시에서는 이영희(68)·최유미(85)·원미진(88)·남미영(89)·백재인(백현경·89)·유현정(91)·정진숙(93)·진현경(93)·김수진(94)·박수이(95)·김도희(97)·백원선(98)·박수진(99)·박지수(99)·정승은(99)·조장은(00)·홍수연(대학원 02)·김경주(05)·라지영(06)·김린(08)·유다솜(10)·윤지연(10)·이윤정(11)·이지은(11)·이수현(14) 동창이 작가로 참여하였다.

생활미술과

회장 __ 김수진(94)

제39회 비주얼 메시지 정기전 개최

제39회 비주얼 메시지 정기전 ‘Merge E.merge 연결과 확장’ 전이 개최되었다. 8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5일간 모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재연결 혹은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연결과 융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비주얼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시각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그래픽 작품, 영상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개인 작업,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에 레이어 되는 통합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에 설치된 최첨

단 디스플레이인 투명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협찬)는 연결과 확장이라는 콘셉트를 표현하는 캔버스로써 활용되었다.

비주얼 메시지는 시각디자인 전공 동창 출



도예과

회장 __ 한주원(89)

도림전 진행 및 대바자회 참여

제43회 도림전 ‘ARDOR’가 6월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 KCDF 갤러리 2층에서 열렸다. 전시 주제인 ‘ARDOR’는 제42회 주제인 ‘Rebooting’을 이어 열정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모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동창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의 도예 트렌드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9월 14일(목) 총동창회의 대바자회에 도자예술전공 대학원생들이 ‘각양각색’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소품을 준비하여 본인의 기량을 펼쳤다.

도예과는 제43회 도림전 ‘ARDOR’를 개최하였다



지회소식

멜버른 지회

회장_윤숙경(간호 76)

새 동창들 합류에 활기 띠어

8월 26일(토) 예쁘게 인테리어를 마치고 동창들을 초대한 박령(중문 03) 동창 집에서 14명이 모여 8월 동창 모임을 가졌다.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 와서 상을 차리니 호텔 뷔페가 무색할 정도의 푸심한 상이 차려졌다.

《멜버른 저널》에 그간 모임에 참석치 않았던 이화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광고를 낸 것이 효력을 발휘해 새로 온 동창들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기뻤다. 그동안 어린 아기를 동반한 동창이

박령 동창 집에서 모임을 가진 멜버른 지회 동창들



뜸했는데, 귀여운 4세 남아를 데리고 온 엄진(영문 05) 동창과 3세 남아를 데리고 온 정윤미(사회과교육 11) 동창이 참석해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김정주(과교 83) 동창도 새로 가입하여 3명의 새로운 이화 가족이 생겼다.

식사 후에는 3분 Speech를 하며 그간의 소식을 전했고, 이후에 아나바다 나눔장을 열었다. 아나바다 나눔장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동창회비에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9월 2일(토)에는 오윤미(피아노 04) 동창의 DUO CONCERT가, 또 9월 9일(토)에는 City에 위치한 Botanic Garden에서 동창들의 트래킹 모임이, 9월 18일(월)에는 윤숙경 동창이 참여하는 멜버른 거주 한국 미술작가들의 모임인 KAAM 미술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이해연(서양 76)

매월 동창들과 만나는 시간

매달 첫번째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른다. 점점 더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팬데믹 이후 변해버린 세상에 망설여지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 텐데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늘 한 달에 한 번 변함없이 만나고 있다. 5월 6일(토)의 만남에는 박여순(사학 69) 동창의 2021년 회계 감사 보고와 함께 10월에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하는 동창들이 모여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공식적인 동창회는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나누기로 하였다. 모두 함께 식사 후 아름다운 5월에 생일을 맞은 동창들을 위해 축하 노래를 부르고 떡을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북가주 지회 동창들

나누며 깊은 우정과 건강을 약속하며 모임을 끝맺음하였다.

5월 모임에서 모두 함께 교가를 부르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짧은 몇 분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다. 모든 동창이 한마음으로 다시 이화 사랑을 깨달음에 감사했으며, 앞으로 매달 만남을 가질 때마다 교가를 부르기로 하였다. 다른 소모임으로는 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어 매달 네 번째 화요일에 만나 악보를 보며 열심히 목소리와 마음을 다듬고 있으며, 골프회도 한 달에 한 번 팀을 이루어 건강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6월 3일(토)의 만남은 강희식(사복 61) 동창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오랫동안 한미 봉사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강희식 동창이 5월 19일(금) 2023 Norman Mineta Legacy Award를 수상하였다. 지역 사회 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봉사해 온 긴 시간이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은 수상이었다.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던 강희식 동창이어서 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리고 양승희(사학 73) 동창이 이화 창립 137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영원한 이화인' 상을 받아 경사가 겹친 날이었다.

7월 모임도 어김없이 25명 가까운 동창들이 만남을 가졌다.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이곳에서 치를 예정이라 준비와 각 팀의 결성과 모금 등에 성의를 다하였다. 한편 새롭게 북가주 지회를

이끌어갈 이영완(정외 81) 신임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무거운 짐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 것에 감사하며 8월 만남을 약속하며 마무리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최혜영(생미 86)

타지 동창들의 방문이 많았던 여름

세인트루이스 지회에 방문하는 동창들이 많아서 뜨겁고 바쁜 여름이었다.

몇 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박찬옥(성악 89) 동창이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여 8월 7일(월) 루루 식당에서 동창들과 반가운 해후를 하였다.

8월 10일(목)에는 세인트루이스 게이트웨이 코리아 재단이 주최하여 세인트루이스 아트뮤지엄에서 열리는 보자기 워크숍(8월 13일(일)부터 9월 10일(일)까지) 강사 이영민(디대원 96) 동창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8월 24일(목)에는, 최혜영 회장의 초·고·이화 동창이자 한국에서 춤 비평가로 활동하는 이지현(무용 86) 동창이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여 이지현 동창을 환영하는 식사 모임을 가지고, 보자기 워크숍에서 동창들과 함께 보자기 바느질에 동참하였다.

이영민 동창을 환영하는 모임에 참석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시애틀 지회

회장 __ 신인선(외국어교육-불어전공 85)

다양한 소모임으로 활기 넘치는 동창 활동

시애틀의 여름은 초록의 자연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쾌적한 공기를 두루 갖춘 1년 중의 전성기이다. 시애틀 지회 동창들은 그동안 추위와 비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야외 활동을 즐기며 추억의 순간들을 함께 만들었다.

전체 행사는 8월 5일(토)에 커클랜드 소재의 아름다운 호수가 공원 O.O. Denny Park에서 야유회가 있었다. 50여 명의 동창과 동창 가족들이 참여하여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을 먹고,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신나는 게임을 즐긴 후 푸짐한 상품도 받으며 즐거운 야외 한마당을 펼쳤다. 맛 있는 불고기 양념 바비큐 냄새로 공원을 찾은 이들의 호기심과 시장기를 자극하였고, 동창들의 명쾌한 웃음소리는 공원 구석구석에 메아리치며 추억의 순간들을 만들었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이 풍성한 이화 여름 잔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금을 후원해 준 김예자(커미부 60 입학, 2023년 명예졸업) 동창에게 감사드린다.

시애틀 지회는 올해부터 정기적인 전체 행사 외에 원하는 동창이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5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그룹의 반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임을 이어왔다. 사진·등산반은 근처의 산과 바다를 찾아 꽃, 나무, 돌, 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사진에 담았고, 골프반은 매달 두 번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운동하며 친목하였다. Arts 모임은 갤러리와 예술 작품이 전시된 거리를 함께 거닐며 작품을 감상하였다. 합창반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화음 맞추어 노래 연습을 하였으며, 지난 여름 야유회 때는 합창반이 주축이 되어



아름다운 정원에서 음악과 함께 티파티를 즐긴 차선방 모임

다 함께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자리도 마련하였다. 차선방(차와 선율이 있는 사랑방) 모임에서는 지난 봄 음악 강연을 개최하여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함께 여행하는 호사를 누렸으며, 8월에는 모두들 꽃무늬 옷을 입고 들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음악 선율이 어우러진 한낮의 티파티를 즐기며 소녀처럼 마냥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제 가을이 되면 시애틀은 형형색색의 알록달록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질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시애틀 지회 동창들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을 산을 찾고, 푸른 들판에서 운동하고, 멋진 미술 작품과 음악을 논하며 친목을 도모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돋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이화의 이름을 더욱 빛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국 지회

회장 __ 홍시내(커미부 02)

남경화 동창과 함께한 와인 시음회

7월 5일(수) 저녁, 런던 동부에 위치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동창 10명이 와인 전문가 남경화(국문 98) 동창과 함께하는 와인 시음회에 참석했다. 프



와인 시음과 함께 친교를 다진 영국 지회 동창들

랑스 보르도 그라이브에서 화이트 와인인 레 트라 망(Les Trois Mains)을 출시하기도 한 남경화 동창은 와인의 종류(스파클링, 화이트/로제/레드, 스위트, 포티파이드)부터 시작하여 와인 재배 지역, 특징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와인 설명에 이어 시각-후각-미각-결론에 이르는 시음 방법을 여러 예를 들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전반적인 와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남경화 동창이 출시한 레 트라 망을 비롯해 화이트 와인 3종과 레드 와인 2종을 직접 시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배운 대로 와인잔을 돌려 시향하고 와인의 풍미를 한껏 즐겼다.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개봉한 와인을 정말 돌려보내도 되냐는 질문에는 가끔 코르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잔으로 주문한 경우 개봉한 지 오래된 와인인 경우도 있으므로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언제 오픈한 와인인가요?”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5종의 와인을 워터비스 킷과 샤크테리와 함께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이야기 꽃을 피운 탓인지 2시간의 모임이 너무 아쉬워 근처 맥주집에서 2차를 마친 후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였다. 남경화 동창의 봉사로 와인에 대한 지식도 쌓고 동창 간의 돈독함도 다지는 시간이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최미나(관현 90)

빈민 지역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전달

워싱턴DC 지회는 양승태 이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통해 지역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단비 와도 같은 유익한 시간을 가지며 여름을 시작하였다. 7월 23일(일)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창회 사회사업부 활동의 일환으로 워싱턴DC 빈민 지역의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제공하는 BackPack Drive에 참가하기 위해 동창들과 자원봉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도네이션 할 책가방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 6일(일)에는 이 BackPack Drive를 주관하는 DC Little Light Ministry의 시설 세 군데를 방문하여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전달하였다.

올 여름에는 워싱턴DC 지회가 제공하는 모교 국제하계대학 장학금을 통해 많은 지원자 중 두 명의 학생이 6월 26일(월)부터 7월 24일(월)까지 모교 국제하계대학에서 4주 동안 수업을 들으며 한국의 문화와 이화의 정신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원자 중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사회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자원봉사를 한 중·고등학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용품 도네이션, 지역 사회 장학생 선발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인 워싱턴DC 지회



생 동창 자녀들과 대학과 전공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통해 동창회의 활동과 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창과 동창 자녀 그리고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전공 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4주간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받는 모교 기업가 센터 6명의 학생들과 동창 및 동창 가족들과 알찬 시간을 보내며 세대를 아우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였다. 동창뿐 아니라 발달장애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져 참여하였고, 발달장애 예술가의 성악 연주도 감상하였다. 또 작가의 경험에 기반한 솔직한 대담과 Q&A를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서적으로 풍성한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인천 지회

회장__김자영(교육 82)

북콘서트에서 따뜻한 치유의 시간 가져

인천 지회는 8월 23일(수) 오현주(작곡 93) 동창이 운영하는 이슈갤러리 카페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정기 모임 후, 작가인 오한숙희(사회 83) 동창의 '자폐스펙트럼 딸과의 여행기를 담은『우리, 희나』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타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인천 지회 동창들의 참석과 응원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작가의 고향인 인천에서 열린 북콘서트는 비바람이 거센 궂은 날씨에도 동창들의 공감과 참여로 따뜻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북콘서트에서 인천 지회 김자영 회장의 낭독과 탁은정(사학 77) 동창의 연주로 작가

전주 지회

회장__이정숙(유교 81)

세종시로 봄 나들이

4월 26일(수) 정부 세종종합청사 옥상정원과 베어트리파크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전주 지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인 동창 모임을 갖고, 서로의 근황과 활동 소식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베어트리파크를 방문한 전주 지회 동창들

오한숙희 작가의 북콘서트와 함께한 인천 지회 동창들



진주 지회

회장__염선행(생미 83)

숲속의 진주에서 보석 같은 시간

여름이 오기 전에 떠난 진주 지회의 6월 여행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였다. 숲의 가치를 담은 자연



숲속의 진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진주 지회 동창들

속 휴식공간, 진주시의 진주 같은 숲속의 진주에서 우드랜드의 도마 만들기 목공체험, 자연휴양림에 서 만난 숲 해설사의 동화적인 해설, 나무수국 앞에서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정원으로 향하는 웃음소리, 초여름의 바람과 연녹색의 향연에서 얻은 산림 치유의 시간들은 산림휴양관에서의 1박 2일(6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의 소중한 기억과 함께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칭찬하고 쓰담쓰담 해주는 치유의 시간으로 남았다. 후배들을 위해 선배가 손수 내려준 커피 향과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날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한 상품과 함께 풍성한 하루를 보냈다.

7월 8일(토)에는 미술사학 박사인 김금미(영문 80) 동창의 '미술사 시간 여행' 강의가 성영희(서양 95) 동창의 갤러리에서 있었다. 우리나라 미술사를 서양 미술사와 비교해가며 선사시대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섭렵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실전 학습으로 7월 28일(금)에 토론토의 The Art Gallery of Ontario(AGO)도 함께 방문하여 그곳의 미술 작품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며 감상을 하였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 토론토 지회는 그간의 동창회 행사나 지역사회 활동들을 종합한 토론토 지회 연혁을 8월 7일(월)에 발간하고 지회 웹사이트에도 공유하였다.

화음회, 화관회, 기타반, 걷기반, 판소리반 등 각 동호회도 매주 또는 매달 모여 동호회 리더들과 함께 연습하고 친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야유회에서 풍성한 하루를 보낸 토론토 지회 동창들

토론토 지회

회장 __ 김수연(물리 86)

50주년을 맞이하며 지회 연혁 발간

6월 10일(토) G. Ross Lord Park에서 총 42명의 이화 동창과 동창 가족이 참석하여 즐거운 야유회를 가졌다. 김은실(피아노 66) 동창의 식사 기도를 시작으로 동창들의 정성어린 음식과 특별히 마련된 풍성한 디저트 테이블의 즐거움으로 식사를 마쳤다. 이어서 윤미경(사복 93)·윤지숙(중문 92) 동창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개인전, 단체전으로 이어지는 수준 높고 재미있는 퀴즈와 게임 순서, 푸짐

파리 지회

회장 __ 박현선(의직 91)

2023년 재불 이화 동창회 야유회

올해에도 변함없이 재불 이화 동창회 야유회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야유회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6월 첫째 주 토요일, 파리 몽수리 공원에서 열렸다. 대선배인 이충석(심리 56) 동창부터 갓 졸업한 곽원경(경제 22) 동창까지 총 29명의 동창과 그들의 가족, 지인까지 총 52명이 참석하여 파리의 봄을 즐겼다.

파리 지회 야유회는 가족과 지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연중 행사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세대와 동창들의 손주 자녀들까지 참여하여 파리 지회만의 가족 같은 피크닉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었다. 임원진이 준비한 음식과 동창들이 직접 쟁겨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각종 경품 행사와 게임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오성실(영문 68)

피크닉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

6월 3일(토) Media, PA에 있는 Ridley Creek State Park에서 피크닉 모임을 가졌다. 푸른 초원에 둘러싸인 파빌리온 안에 앉은 동창들은 어릴 때 소풍 나온 만큼이나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 한 후, 양정자(성악 65) 동창의 지휘로 모교 교가를

부르고, 돌아가며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의 사위들도 함께한 피크닉은 더욱 풍성하게 느껴졌다.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즐기며 동창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식사 후 진행된 김선주(국문 72) 동창의 사자성이 게임은 차근하고 집중시키는 나즈막한 목소리에 동창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 기울이며 들었다. 빨리 많이 대답하는 동창이상을 받게 되는데 오늘의 영광은 오경희(사회과교육 83) 동창이 차지하였다. 끝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많이 웃은 시간이었다. 시작도 끝도 딱 좋은 날의 피크닉 동창회를 가지게 됨에 감사한다.

8월 5일(토) 모임은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뉴저지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뉴저지의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어 동창들은 시작 전부터 기대에 찬 환한 얼굴들이었다. 2023년 모금 운동으로 도토리 국수 주문한 것들을 나누었고, 모금 된 2,500달러는 30여 년간 해양 선교를 하는 이병은 선교사에게 9월 초에 전달하였다.

유옥자(약학 62) 동창이 '나의 김치 맛'이란 제목으로 늘상 담가 먹는 김치의 비법을 나누어 주었고, 김영애(국문 62) 동창의 숨겨진 수고에 의하여 『이대 북미주 필라델피아 주소록』이 새로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두 동창의 동창회 사랑과 늘 자리 지켜 줌에 감사드린다.

뉴저지에서 열린 8월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고(故) 최선희(문과 31) 동창

딸(고 양제시(영문 60) 동창)이 태어난 이후 남편인 고 양우조 씨와 최 동창이 8년간 함께 쓴 육아 일기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제시의 일기>가 8월 29일(화)부터 10월 29일(일)까지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공연된다. 고 최선희 동창은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이며, 모교에서 영문과와 비서학과 교수로 재임한 바 있다. 책으로도 출판된『제시의 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에서의 여정이 그대로 담긴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나영균(영문 49) 동창

모교 영어영문학부 명예교수 나영균 동창이 2025년 영어영문학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였다. 7월 21일(금)에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나영균 동창을 대신해 딸인 전수용(영문 76, 모교 영어영문학부 명예교수)·전송미(영문 83, 주필리아트 디앤씨 대표) 동창이 참석했다.

강희식(사복 61) 동창

5월 19일(금) 개최된 아시안·퍼시픽 아일랜더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에서 하원의원인 아쉬 칼라 의원으로부터 노먼 미네타 유산상(Norman Mineta Legacy Award)을 수상하였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초대 공동 창립자인 강희식 동창은 1979년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를 창립한 후 44년이 넘는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강희식 동창

송창주(가정 62) 동창

7월 14일(금) 이준 열사 순국 116주 기 추모식이, 송창주 동창이관장으로 있는 네덜란드 해이그 이준 열사기념관에서 엄수되었다. 추모식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김학재 주벨기에 정무공사, 타카미츠 무라오카 라이덴대 명예교수, 이기항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원장, 윤 원 한인회 회장 및 현지교민들이 참석했다.



송창주 동창

조덕이(생명 64) 동창

조덕이 동창이 제12회 원목회 서예대전 서각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7월 25일(화) 제19회 전라북도 서도대전에서 '식무구포'로 서각부문 입선, '줄탁동시'로 서각부문 특선을 하였다.



조덕이 동창

김혜순(섬예 66) 동창

6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을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과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베를린 공연은 9월 26일(화) 아드미랄스팔라스트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혜순 동창은 2막에 무대에 올라 실을 감고



김혜순 동창

끈을 맷고 풀며 매듭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의 하와이 30년>이 최근 TV조선에서 방영되었다. 이덕희 동창은 이 다큐멘터리에 직접 출연하였다.

천양희(국문 66) 동창

시인 천양희 동창이 2023년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8월 12일(토) 강원도 인제읍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렸다.

박은경(영문 68) 동창

3월 31일(금) 통영시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 이사장 박은경 동창이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박은경 동창은 UN대학 교 고등교육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역 전문가 기구인 RCE (Regional Center for Expertise)를 세계 8번째로 통영에 설립하고, 20년간 이사장으로 운영하였다. 박은경 동창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으며 UN대학 아시아태평양RCE도시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은경 동창

이덕희(사회 69) 동창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이덕희 동창의 저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을 토대로 제작된 동명의 다큐멘터리 <이승만



이덕희 동창

이명희(식영 69) 동창

이명희 동창이 30여 년의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9월 6일(수)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금은 이명희 동창의 모교 재학 당시 이름을 딴 '이명희B장학금'으로 명명돼 모교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명희 동창

박명숙(무용 72) 동창

현대무용가 박명숙 동창의 대표작 <에미(Emi: Mother)>가 6월 30일(금) 경기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무대에 올랐다. 박명숙서울댄스씨어터가 주최·주관하고 국내 예술가 대표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2023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예술 활동 창작 지원사업'이다.



박명숙 동창

박재희(무용 72) 동창

9월 3일(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대극장에서 <무

백하나회

백하나회는 김취복(가정 55) 동창여왕을 중심으로 1955년 졸업한 동창 6명, 1972년 졸업한 동창 38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1987년 모교 창립 101주년 행사 이후 지금까지 친목을 나누고 있다. 백하나회는 '올해의 이화인' 추대 이전 설립된 모임으로, 1987년에는 1955년 졸업생과 1972년 졸업생 중에서 '올해의 이화인'을 뽑았다. 백하나회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동창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같은 과의 졸업생들이 모이는 통상적인 모임과는 다르다. 또한 백하나회의 회원들은 봉사와 자선 활동 등을 통해 모교 발전에 힘쓰고 있고, 국내외 여행지를 함께 다니며 선후배 간, 동기 간의 끈끈한 정을 키우고 있다.



중인(舞中人)-박재희 춤 60년>을 무대에 올렸다. 한영숙류 태평무 초대 보유자인 벽파 박재희 동창이 무대에 오른 지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태평무전승회(사)벽파춤연구회가 주최하고 '박재희춤60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다.



박재희 동창

양승희(사학 73) 동창

양승희 동창이 6월 24일(토)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도메인 호텔에서 산호세 파이오니어 라이온스 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양승희 동창

정채원(정봉숙·영문 73) 동창

정채원 동창이 제33회 '편운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시집은 『우기가 끝나면 주황물고기』이다. 시상식은 5월 20일(토) 경기도 안성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렸다.



정채원 동창

고혜숙(조소 77) 동창

8월 21일(월)부터 9월 10일(일)까지 '시간의 소리 없는 흐름'이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A에서 개인 전을 개최하였다.



고혜숙 동창

남성희(커미부 78) 동창

대구보건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남성희 동창이 '제20회 대구시 여성대상'을 수상하였다. 남성희 동창은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14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29~30대)을 역임하였다.



남성희 동창

이노연(무용 78) 동창

이노연 동창은 8월 25일(금)부터 9월 2일(토)까지 '중국 동북 3성 한국전통민속예술 순회공연'으로 중

국 연변지역 조선족 마을을 방문했으며, 작품 <남녘살풀이/진도북놀이>를 안무하고 출연했다. 더불어 한국 춤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진행했다. 또한 8월 12일(토)에는 부산 마하사에서 '2023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 행사에서 작품 <회심바라승무>를 안무하고 출연했다.



이노연 동창

최은희(무용 78) 동창

7월 22일(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무용단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별이 빛나는…> 공연에 초청되어 작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최은희 안무/출연)를 공연했다. 최은희 동창은 부산시립무용단의 3대 예술감독 및 안무자를 역임했다. 8월 6일(일) '대마도 아즈아라항 축제'에서 최은희 동창이 총감독으로 이끄는 부산의 대표적 무용단 춤 패 배김새가 한국전통춤 공연을 가졌다.



최은희 동창

윤성주(무용 79) 동창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인 윤성주 동창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7월 6일(목) 캐나다 밴쿠버 퀸 엘리자베스 씨어터에서 특별 기념공연 <춤, 풍경>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BC주 수상 등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 교민을 비롯한 현지 관객들로 매진 성황을 이루었다.



윤성주 동창

김옥광(섬예 80) 동창

5월 1일(월)부터 6월 10일(토)까지 한국미술진흥원 초대로 '한류 7기 관 스타작가전'에서 대표작 40여 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순회 개인 전을 가졌다. 전시는 한국미술역



김옥광 동창

사관, 후암아트센터, 해외교류작가회, 국가예술방송, 갤러시미술관, 앤시디미술관, 한국종합방송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7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코엑스 C홀에서 '보자기 이미지 디자인 전'을 가졌다.

제46회 의약평론가 기장 수여식에서 2023년 올해의 의약평론가로 선정되었다. 의약평론가 선정은 《의학신문》 주관, JW중외제약의 후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임선영 동창

정성숙(무용 80) 동창

국립정동극장 대표 정성숙 동창은 여름 시즌 다양한 춤의 매력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한여름 밤의 춤>을 개최했다. 2023년 새롭게 선보인 <한여름 밤의 춤>은 그 첫해를 맞아 '한국 창작춤' 대가들의 라인업으로, 8월 23일(수) 김매자(전 모교 무용과 교수), 25일(금) 국수호, 27일(일) 배정혜 명인의 춤을 공연했다.



정성숙 동창

함영림(피아노 80) 동창

7월 9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모교 명예교수 함영림 동창과 졸업생 10인이 12번째 예림회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졌다. 예림회는 함영림 동창이 37년간 가르친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제1회 연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란키브스크 필하모니 첼버 오케스트라와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만들었다.



함영림 동창

황정주(제약 82) 동창

황정주 동창이 제16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황정주 동창은 2011년 비영리법인인 한국의 집 단체를 설립하고, 2021년 샌디에이고 발보아 공원에 '한국관'을 완공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상을 수상했다.



황정주 동창

박향림(서양 83) 동창

서양화가 박향림 동창은 6월 6일(화)부터 17일(토)까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FAR BEYOND GALLERY에서 '선과 면(Line & Flat)'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박향림 동창

박병희(약학 84) 동창

6월 30일(금) 종로성당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동문연주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였다.



박병희 동창

조영주(의학 84) 동창

5월 9일(화) 열린 '2023년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영주 동창은 2020년부터 한국 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조영주 동창

류시숙(서양 82)·이영미(서양 82) 동창

7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여류 100호회'가 진행한 2023 한·미·불국제교류전 '색채의 언어, 우주를 사유하다'에 참여했다. 1995년 창립한 '여류 100호회'는 100호 이상의 대작을 제작하는 여류 화가들의 모임이다.

임선영(의학 82) 동창

임선영 동창이 5월 25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영란(서양 85) 동창

8월 29일(화)부터 9월 10일(일)까지 전주 완산군 소재 청목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 전북의 불꽃IV '탁, 그 숨결을 느끼다' 전시에서 한지의 조형적인 해석을 새롭게 한 작업을 선보였다. 이번 기획전은 전북 지역의 시각예술가를 집중 조명하였다.



김영란 동창

이기연(사복 85) 동창

이기연 동창이 1월 17일(화)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에 임명되었다. 이기연 동창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정신건강 전문요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기연 동창

백다임(서양 86) 동창

8월 1일(화)부터 12일(토)까지 파비온드갤러리에서 'Encounter'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백다임 동창은 정사각형의 견고한 색면을 구축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물감층을 올려, 평면과 물감층의 마주침을 지켜보며 조화와 공존을 위한 지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백다임 동창

오영주(정외 86) 동창

오영주 동창이 신임 외교부 제2차관으로 발탁되어

외시 출신 여성 외교관 중 최초로 차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영주 동창은 35년차 베테랑 외교관으로,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외교안보소장 등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주베트남 대사로 활동해 왔다.

정향숙(사복 86) 동창

3월 30일(목)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현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향숙 동창은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향숙 동창

최명하(섬예 86) 동창

7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코엑스 C홀에서 '섬유 디자인' 전을 가졌다. 이날 전시에는 최명하 동창의 섬유 미니어처 작품들과 손수 제작한 액세서리를 통해 자수 디자인의 품격을 높였다.



최명하 동창

강승주(조소 87) 동창

6월 5일(월)부터 25일(일)까지 'Ego Regina: Venus'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A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강승주 동창

신승원(장미 87) 동창

7월 21일(금) 강원도 영월 더한옥 종택(HERITAGE HOUSE)에서 아트마이닝(대표: 신승원) 기획전시

이화섬유조형회

9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2023 이화섬유조형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는 1986년에 시작해 올해 34주년을 맞았으며, 모교 조형예술대 졸업 또는 대학원 졸업 출신으로 이루어진 교수, 작가,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2023 이화섬유조형전

GARDEN OF DELIGHTS 오프닝이 있었다. 더한옥헤리티지하우스 오픈을 기념하고, 한국 현대 미술의 동시대적인 탐구를 보여 주는 작가 8인의 평면, 조각, 공예 등 약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 중이며, 더한옥건축과 더불어 K-아트플랫폼으로 계속 키워갈 것이다.



신승원 동창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이 한국모유수유넷 6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8월 16일(수) 이대서울병원 보건관에서 열렸다.



김영주 동창

문혜성(의학 88) 동창

이대서울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문혜성 동창이 다빈치SP 로봇수술 1,000건을 달성하여, 7월 31일(월) 이대서울병원 중강당에서 'SP단 일공 로봇수술 1,000건 세계 최초 1위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문혜성 동창

박정임(생미 88) 동창

8월 25일(금)부터 29일(화)까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전시 주제는 '해피 모먼트'로, 박정임 동창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과 힐링의 순간들을 그림과 사진을 통해 표현했다.



박정임 동창

이상미(섬예 88) 동창

이상미 동창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운동주와 시간 거미줄> 오페라 공연에 협력 예술인으로 참여하였다. 7월 25일(화) 극동방송 주최로 열린 이 공연에서 이



이상미 동창

상미 동창은 오페라 영상을 위한 섬유조형 설치 미술과 무대 소품, 하늘 위로자의 의상을 맡았다.

이은화(간호 88) 동창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은화 동창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치와 역할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은화 동창

이주연(중문 88) 동창

(주)더조이플러스 대표 이주연 동창이 시니어여성축구단 FC더조이플러스를 창단, 2월 4일(토)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시니어 모델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무대화하여 시니어들

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더조이플러스는 축구팀을 통하여 중년여성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봉사 활동, 문화 활동으로 사회적 건강도 모색한다.



이주연 동창

이혜경(정외 88) 동창

갤러리 아트인동산 아트디렉터 이혜경 동창이 7월 11일(월)부터 17일(월)까지 라인갤러리에서 가평꽃동네 희망의집 미술반 중증장애인 작가 '다림아티스트' 15명의 작품 전시를 기획·전시회를 가졌다. 가평꽃동네 희망의집의 미술반은 2010년부터 이상미(섬예 88) 동창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미술 지도를 시작, 현재는 김연화(동양 88)·유진경(조소 91) 동창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혜경 동창

지주연(사복 88)

1991년 7월 서울시 사회복지전문 요원(별정7급)으로 공무원에 입문하여 경기도청에서 무한돌봄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등을 거쳐 여성가

족국장, 복지국장을 거쳐 올해 7월에 여성 최초 양평부군수(지방부이사관)로 부임하였다.

박가나(서양 89) 동창

한국미술인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제31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에서 골든십자가상을 수상했다. 미술전 오픈 예배 및 시상식은 9월 7일(목) 오후 3시 인사동 마루아트 센터 특별관에서 열렸다.



박가나 동창

노정연(법대·법전원 90) 동창

9월 4일(월) 노정연 동창이 대구고검장에 보임되었다. 노정연 동창은 법무부 여성아동과장·인권구조과장, 대전지검 공주·천안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전주·서울서부·창원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노정연 동창

박연옥(동양 90) 동창

8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진도 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 '민화, 빛으로 만나다'를 가졌다. 또한 6월 1 일(목)부터 10일(토)까지 평창동 금보성갤러리에서 열린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미술 교류전 '한국, 인도의 빛과 색 그리고 마음' 전에 참가했다.



박연옥 동창

이수정(커미부 90) 동창

이수정 동창이 8월 1일(화) 혜화동 소재 유진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접 번역한 헤밍웨이의 소설『노인과 바다』로 독서 강연을 펼쳤다. 이수정 동창은 기자, 아나운서를 거쳐 소설가로 활동 중이며 2022년도 재외동포문학상 대상(단편소설)을 수상한 바 있다.



이수정 동창

장은진(심리 90) 동창

장은진 동창이 4월 25일(화)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적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은진 동창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진 동창

오현아(섬예 91) 동창

CICA미술관 공모전시에 선정된 오현아 동창의 개인전이 'Abstract Writing – Lines Beneath'를 주제로 7월 12일(수)부터 16일(일)까지 열렸다. 오현아 동창의 작품은 국제적인 아트플랫폼 ARTSY와 유럽 아트플랫폼 ARSPER에 등재되었다.



오현아 동창

윤수미(무용 91) 동창

윤수미무용단(예술감독 윤수미)은 6월 16일(금)부터 23일(금)까지 미국 '시애틀국제댄스페스티벌(SIDF)'과 LA한국문화원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해설이 있는 춤(Contemporary Dance Stories)', '제11회 LA 댄스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했다. 윤수미 무용단은 대표작 〈Tundra〉 등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윤수미 동창

이혜정(동양 91) 동창

이혜정 동창이 8월 2일(수)부터 8일(화)까지 아트불갤러리 청담에서 초대전 '피지털 아트 모멘트'를 열었다.

'피지털 아트(Phisital Art)'란 '피지컬 아트'와 '디지털 아트'의 합성어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디지털이 활용돼 물리적 경험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정 동창

박묘원(동양 92) 동창

6월 13일(화)부터 19일(월)까지 삼 청로 소재 한벽원 미술관에서 개인전 '걷는 풍경-시선이 머물던 곳'을 열었다.



박묘원 동창

이보름(동양 92) 동창

6월 13일(화)부터 19일(월)까지 삼 청로 소재 한벽원 미술관에서 개인 전 '몸의 기억(Somatic Memory)'을 열었다.



이보름 동창

김정희(법대·법전원 93) 동창

김정희 동창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에 임명됐다. 농식품부 인사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 동창은 다시 한번 '여성 최초 1급 기관장'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김정희 동창

이유미(조소 93) 동창

8월 11일(금)부터 27일(일)까지 삼청동에 위치한 갤러리 도로시 살롱에서 개인전 '괜찮아요'를 가졌다. 이유미 동창은 제주에서 종이로 사람을 빚어 세상과 이야기하는 작가이다.

천혜영(경영 93) 동창

7월 21일(금) 천혜영 동창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천혜영 동창은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동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이다.

태혜신(무용 93) 동창

태혜신카르마프리무용단 대표인 태혜신 동창이 8월 31일(목) 나루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GanDa -ON〉을 무대에 올렸다. 태 동창은 예술감독과 안무를 맡았다.



태혜신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6월 28일(수)부터 7월 4일(화)까지 GALLERY DOS에서 초대전 '미완의 유토피아—빈티지 시크'를 가졌다. 현대자수와 기계자수 기법을 활용해 평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한 이상영 동창의 작품은 3차원적 표현의 확장을 이루었다.



이상영 동창

이영림(법대·법전원 94) 동창

9월 4일(월) 이영림 동창이 대전고 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영림 동창은 대검 인권기획과장,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장 검사, 대전고 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영림 동창

백희나(교공 95) 동창

6월 22일(목)부터 10월 8일(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백희나 그림책 전'을 가졌다. 백희나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구름빵』부터 『연이와 버들도령』에 이르는 자신의 창작 그림책 11권 속 이야기를 140여 점의 작품 세트와 체 험형 미디어 콘텐츠로 전시장에 풀어 놓았다.



백희나 동창

이선영(영문 95) 동창

이선영 동창이 필립스코리아 퍼스널헬스 사업부 대 표에 취임했다.

황윤(영문 95) 동창

영화감독 황윤 동창이 여섯 번 째 작품 〈수라〉를 발 표하였다. 〈수라〉는 갯벌의 아름다움을 수려한 이미지로 담은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소정 동창

이소정(제약 96) 동창

CSK 상무(팀장) 이소정 동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품질운영센터 산하 글로벌 규제기관
인허가 책임자(Regulatory Affairs)로 영입되었다.

권오신(서양 98) 동창

7월 15일(토)부터 8월 20일(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영은미
술관에서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은 창
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개인전
'Chocolate Box'를 가졌다.



권오신 동창

남묘진(서양 98) 동창

8월 4일(금)부터 26(토)일까지 서
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
간 GALLERY 1707에서 초대 개인
전 '숨바꼭질'을 열었다. 남묘진 동
창은 작가 '가우'로 활동 중이며,
작품의 내용은 대자연의 틈새와 숨
은 아름다움을 찾는 숨바꼭질이다.



남묘진 동창

임윤아(약학 98) 동창

26년간 글로벌 바이오 및 헬스케
어 업계에서 일해온 임윤아 동창
이 임상전략 수립 및 임상개발 전
략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인 메디라마의 커머셜 오퍼레이
션 총괄(COO, 최고운영책임자)에
영입되었다.



임윤아 동창

강선구(조소 99) 동창

6월 1일(목)부터 7월 30일(일)까지
'가까운 바깥'이라는 주제로 바우지
움조각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
했다.



강선구 동창

강서경(동양 00) 동창

9월 7일(목)부터 12월 31일(일)까지 서울 용산구 리움
미술관에서 개인전 '벼들 북 꾀꼬리'를 열고 있다. 다

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회화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
는 작가 강서경 동창의 작품 130여 점이 리움미술관
M2 전시장과 로비를 가득 채웠다.

진민욱(동양 03) 동창

5월 30일(화)부터 6월 24일(토)까
지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소재 Fill Gallery에서 개인전 'Little
Seclusion'을 열었다. 한국화 작가
인 진민욱 동창은 전통 비단 채색
기법을 연구하며, 동시대적 문제
를 다루는 현대미술가이다.



진민욱 동창

오윤미(피아노 04) 동창

9월 2일(토) 피아노 듀오 콘서트
'Fantasy in Music'을 성황리에 마쳤
다. 오윤미 동창은 J&Y Piano Duo
멤버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향과
동시에, K.A.MEL (Korean Artists
in Melbourne)의 뮤직디렉터를 맡
아 매년 11월 자선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윤미 동창

조수연(물리 04) 동창

이화여대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교
수로 재직 중인 조수연 동창의 연
구팀이 발표한 저차원 소재 상제
어에 관한 충설 논문이 기초과학
분야 최상급 국제학술지인 《케미
컬 리뷰(Chemical Reviews(IF:
72.087))》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물리학과 양희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
구로 진행된 이번 논문은 이화여대 BK21 4단계 시스
템헬스융합전공 박사과정생 이승연 씨가 공동 저자
로 참여했다.



조수연 동창

정유미(동양 05) 동창

정유미 동창이 6월 22일(목)부터 7월 2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소재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바람(Wind)'을 열었다. 정유미 동창은 강릉과 여수에서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바다, 산, 섬 등 자연을 가까이 하는 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과 기억을 화면에 담았다.



정유미 동창

이혜선(장미 06) 동창

모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이혜선 동창이 8월 9일(수)부터 14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Gallery KOSA에서 개인전 'POETIC CYCLE'을 가졌다.



이혜선 동창

정수연(의학 08) 동창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수연 동창이 최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13회 동아시아음성학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김소정(동양 14) 동창

6월 15일(목)부터 7월 15일(토)까지 종로구 우정국로 소재의 OCI 미술관에서 개인전 'Matters'를 열었다. 이 전시는 OCI미술관의 대표적인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OCI YOUNG CREATIVES에 선정되어 이루어졌다.



김소정 동창

김효진(동양 14) 동창

김효진 동창이 2023 수림아트랩 재창작지원 시각예술 분야에 선정되어 7월 1일(토)부터 8월 3일(목) 까지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소재 수림큐브에서 개인전 '인간적인 것의 미로'를 가졌다.



김효진 동창



이지현 동창

'GROWING'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H.ORM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보경(조소 19) 동창

8월 2일(수)부터 8일(화)까지 'A Rhythmic Metropolis'라는 주제로 갤러리도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보경 동창

주지한(조소 20)·박유동(이수민·조소 21) 동창

7월 8일(토)부터 14일(금)까지 'Neurose'라는 주제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공간형에서 2인전을 개최했다.



주지한 동창



박유동 동창

이용현(대학원 22) 동창

2023년 8월 2일(수)부터 9월 2일(토)까지 <Beyond the Gaze : Form of Ambiguity>라는 주제로 Gallery X2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용현 동창

이해련(대학원 22) 동창

이해련 동창이 8월 17일(목)부터 9월 3일(일)까지 'EXODUS'라는 주제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을지로 오브(OF)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해련 동창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동창이 펴낸 책



뿌리를 찾아서

이정자(기독 66)

이정자 지음 / 조은

시인 이정자 동창이 열세 번째 시집

『뿌리를 찾아서』를 폈다. 한국문인 협회 회원, 이화동창문인회 이사, 한국 시조문학 회원, 계간 《시조문학》 전문 집필위원,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한국 시가의 아니마 연구』, 『시조문학 연구론』, 『시와 시조 창작론』, 시집으로 『가을 꽃 여울타고』, 『마음의 창을 열면』, 『기차 여행-사계의 노래』 등 있다.



독일문학사

최민숙(독문 71)·이온화(독문 77)·

김연수(독문 87)·이경희(독문 87)

최민숙·이온화·이경희·김연수 지음 / 지식을만드는지식

독일 문학에 일생을 바쳐온 최민숙·이온화·김연수·이경희 동창이 『독일 문학사』를 공동 집필하였다. 이 책은 고대 게르만 시대부터 20세기 독일의 재통일에 이르기까지 사조별로 개념과 배경, 경향과 특징, 대표 작가와 주요 작품을 소개하면서 독일 문학 전체를 개관하였다. 역사가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며, 작품의 줄거리와 인용문을 덧붙여가며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하고, 중간중간 작가와 작품에 얹힌 에피소드나 관련 이미지 등을 넣었다. 모교 명예교수인 최민숙 동창은 한국괴테학회 회장, 한국독어독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클라우스 만의 『메피스토』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번역한 이온화 동창은 모교에서 강의 중이다. 김연수 동창은 현재 강원대 인문학부 독어독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이경희 동창은 모교 호크마교양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등·평화 공동체로의 여정

강인순(사회 77)

강인순·젠티교육플랫폼효재 기획 / 한울 한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지식인 고이효재(영문 45입) 선생의 서거 3주기를 맞아하여, 생전에 남긴 여러 인터뷰 자료를 제자들이 찾아 자서전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1세대 여성학자 이이효재 선생은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1968년 모교에 사회학과를 창설하고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모교에 한국 최초의 여성학과가 설치되는데 힘쓰고,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여 훗날 한국 여성운동의 주축이 될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또한 부모 성 함께 쓰기 1호 선언자인 이이효재 선생은 호주제 폐지, 차별호봉 철폐 등에 앞장서며 한국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강인순 동창은 모교 입학 후 지도 교수였던 이이효재 선생과 인연을 맺은 후 제자로서 반백 년을 함께했다. 경남대 사회학과에 부임해 여성학을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경남대 사회학



과 명예교수이다.

그곳에서 만나, 눈부시게

캄캄한 정오에

강기원(강순미 · 정외 79)

강기원 지음 / 달아실

1997년 『작가세계』로 등단하고 2006년 제25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강기원 동창이 등단 26년 만에 첫 시선집을 폈다. 이번 시선집은 강기원 동창이 그동안 냈던 다섯 권의 시집 중에서 『바다로 가득 찬 책』(2006, 민음사)에서 16편, 『은하가 은하를 관통하는 밤』(2010, 민음사)에서 14편, 『다만 보라를 듣다』(2021, 민음사)에서 12편, 『지중해의 피』(2015, 민음사)에서 7편, 『고양이 힘줄로 만든 하프』(2005, 세계사)에서 1편으로 총 50편의 사랑 시편을 엄선하였다. 특히 각 시편마다 시와 어울리는 세계 유명 화가 29명의 그림 52편을 함께 실었다.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주희(사회 87)

이주희 지음 / 글향아리

모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주희 동창이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을 출간하였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차별을 자아내는 조직, 국가, 신념 체계라는 거시 구조를 검토한다. 2부에서는 차별받는 사람과 그들의 감정을 체념, 적응, 혐오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살펴본다. 이주희 동창은 노사관계, 계급론, 사회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꼭넓게 수행해 온 학자이다.





국내 최초 W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SINCE 1999

에스노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4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카페 황화방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1997년 동창회관 1층에 개업해 팬데믹으로 잠시 문을 닫았던 카페 황화방이
2023년 9월 리모델링 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황화방은 초기 이화화당이 자리한 정동의 옛 지명, 봄이 오면 배꽃이 소담하게 피어
'황화방 안에 천국이 여기'라고도 불린, 이화 교가에도 나온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먹거리 하나에도 정성과 신뢰를 담고
찾아오시는 발걸음의 귀한 의미를 잊지 않는 카페 황화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창, 학생, 지역주민 모두 환영합니다

